

머리말

『중요무형문화재 제110호 윤도장』은 전북 고창 낙산 마을에서 300여 년 넘게 이어져 온 윤도의 제작 기술을 윤도장 보유자 김종대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조사, 정리하여 엮은 것입니다.

윤도(輪圖)는指南성(指南性)이 있는 자침(磁針)을 활용하여 지관들이 음택과 양택 등 풍수를 보거나 여행자들이 방향을 알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나침반입니다.

指南침(指南針)의 원리는 중국에서 이미 한대(漢代)에 실용화되어 짐을 치는데 사용되었고, 그 후 풍수사상과 더불어 풍수가들의 방위 결정에 필수적인 기구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易)과 방위(方位)를 연결시켜 나타낸 것을 나경(羅經) 또는 윤도(輪圖),指南반(指南盤)·指南철(指南鐵), 패철(佩鐵), 쇠 [철(鐵)] 등으로 불렀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와 주목할 만한 사실은 풍수가의 전유물이었던 윤도가 이제는 다양한 용도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뱃사람이나 여행자들이 방향을 보는데 이용하기도 하고, 천문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휴대용 해시계에 정확한 남북 [자오(子午)] 을 정하는데도 윤도가 필요했습니다. 이렇듯 윤도는 묘자리를 보는 지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이던 생활 과학 도구였습니다.

윤도장 보유자 김종대는 조부 김권삼과 백부 김정희에 이어 3대째 윤도 제작의 기법을 이어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전북 고창군 성내면 산림리 낙산은 조선시대에는 흥덕현에 속해 이곳에서 만든 나침반은 ‘흥덕 패철’이라고 불렸으며, 방향이 정확하고 견고해 전통 나침반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한국 전통문화의 연구와 보존을 위한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의 하나로 기획된 이 책은 윤도장 기록영화의 내용을 모두 아우르면서 사진을 중심으로 도면·그림을 곁들여 윤도장의 전체를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지정 당시의 보고서나 관련 논문들의 한계를 뛰어 넘어 보다 학술적으로 보유자의 기능을 기록했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학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 윤도(輪圖)의 역사

1. 윤도란 무엇인가

1) 윤도의 유래

지남반(指南盤)·지남철(指南鐵) 혹은 패철(佩鐵) 등으로 불리는 윤도(輪圖)는 지남성(指南性)이 있는 바늘, 즉 자침(磁針)을 활용하여 지관들이 풍수를 보거나 여행자들이 방향을 보기 위해 사용하던 일종의 나침반을 말한다.



사진1. 여러 종류의 윤도(선추, 평철, 면경철, 거북 패철)

지남침(指南針)의 원리는 중국 한대(漢代)에 이미 실용화되어 점을 치는데 사용되었다. A. D. 1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낙랑 고분에서 출토된 식점천지반(式占天地盤)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다. 이 식점천지반은 하늘(天)과 땅(地)을 상징하는 원반(圓盤)과 방반(方盤)의 두 반으로 이루어져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사상을 나타냈다. 원반의 중심에는 북두칠성이 있고, 그 주위에 12월 신명(십이월신명(十二月神名))을 둘러쓰며, 그 다음 원주(圓周)에는 간지(干支)가 기입되어 있다. 또한 정방형 방반(方盤)에는 8괘(卦)·10간(干)·28숙(宿) 등이 배열되어 있고, 그 중심에 원반을 올려놓고 회전시켜 점치는데 사용하였다. 여기에 나타난 북두칠성이 그후 스푼(spoon)으로 발전하고, 4~5세기경에는 침을 자화(磁化)하여 자침을 만들어 회전할 수 있게 해 방위를 측정하는 기구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것이 풍수설과 더불어 풍수가들의 방위 결정의 필수적인 기구로 쓰이게 되면서, 역(易)과 방위(方位)를 연결시켜 나타낸 것을 나경(羅經) 또는 윤도(輪圖)라고 부르게 되었다.¹⁾

* 이 책에 수록된 용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10호 윤도장 보유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1) 전상운, 『한국 과학기술사』, 정음사, 1976, 160~1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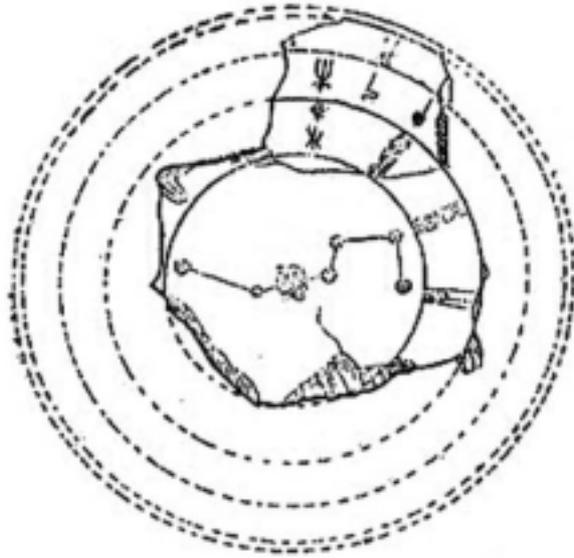


그림1. 식점천지반 복원도(式占天地盤 復元圖)²⁾

그림1. 식점천지반 복원도(式占天地盤 復元圖)²⁾

2) 우리 나라 윤도의 역사

우리 나라에서 언제부터 윤도가 쓰였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삼국시대에 윤도를 구성 하는데 중요한 천문학이 발달했던 것으로 보아 윤도가 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시대 신라의 박사(博士)제도 중에 천문 박사가 있었고, 백제에서는 천문학을 담당하던 일관부(日官部)를 두었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의 사신도(四神圖)를 보아도 당시에 음양오행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Needham,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Vol. 4, pt 1 (전상운, 위의 책에서 재인용)



사진2. 운도를 들고 있는 산신도(山神圖)

또한 중국의 역법(曆法)과 『주역(周易)』이 수입되어 신라에서는 박사와 조교를 두고 『주역』을 가르쳤다. 이렇게 주역과 천문학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시기에 이미 운도가 쓰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통일 신라 말에 승려 도선(道詵)에 의해 풍수도참 사상이 발달하면서, 운도는 지상(地相)을 보는데 중요한 기구가 되었다.

고려시대에도 풍수도참 사상이 널리 유행해, 고려 건국과 관련된 설화 속에도 풍수 얘기를 찾을 수 있다. 도선이 고려 시조 왕건(王建)의 아버지인 왕융(王隆)을 찾아가 지세(地勢)와 방위에 맞게 집짓는 법을 설명하고, 그러면 삼한(三韓)을 통일할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알려 주었다. 왕융이 도선이 가르쳐 준 대로 집을 짓고, 다음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왕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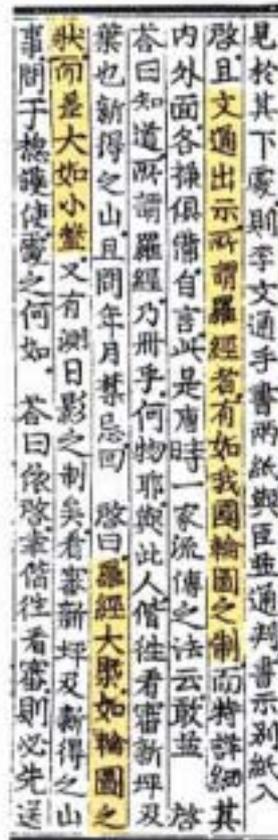


사진3.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운도인 평철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해와 달을 비롯한 각 별들을 관찰해 천체의 움직임에 관한 지도를 만들고 별자리의 변화에 대한 계산을 해낼 정도로 천문학이 발달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와 시간·농사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역』이 널리 연구되어, 공양왕 원년에 교수관(敎授官)을 두고 예학(禮學)·악학(樂學)·병학(兵學)·율학(律學)·자학(字學)·의학(醫學)·풍수음양학(風水陰陽學)·이학(史學) 등 십학(十學)을 각 도감에 나누어 소속시켰다. 이 중에 풍수오행학은 천문학을 담당하는 서운관(書雲觀)에 속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풍수에 밝은 오윤부(伍允孚)같은 사람들이 벼슬을 하거나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기도 했다.

이렇듯 윤도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 중의 하나인 천문학의 발달과 윤도의 기본이 되는 『주역』의 활발한 연구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윤도가 널리 사용되었을 것이다.

조선시대가 되면 이전 기록에서는 찾아 볼 수 없던 ‘윤도(輪圖)’라는 명칭이 실록에 보인다. 선조 33년(1600)에는 명나라에서 온 지리에 밝은 이문통(李文通)이 나경(羅經)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는데, 마치 우리 나라의 윤도처럼 생겼다고 했다. 단지 윤도보다 더 자세하여 내면과 외면에는 각양의 양식이 구비되어 있었다. 크기도 커서 작은 소반만 하였으며, 해그림자를 채는 것도 있었다. 이문통의 말에 의하면 당나라 때부터 집안에 전해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문통에게 지리에 관한 서적을 베끼고 나경을 똑같이 만들 수 있도록 청하니 허락했다. 그리고 이문통이 광화문 안의 어로(御路) 위에 나경을 놓고 지세(地勢)를 살폈다.



『선조대왕실록(宣祖大王實錄)』 권129, 선조 33년 9월 23일 계해

『선조대왕실록(宣祖大王實錄)』 권129, 선조 33년 9월 23일 계해

이 기사로 보아 이전부터 우리 나라에서도 윤도가 쓰이고 있었고, 중국에서는 나경이라는 명칭으로 윤도와 같은 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윤도와 나경이 지세를 살피는데 사용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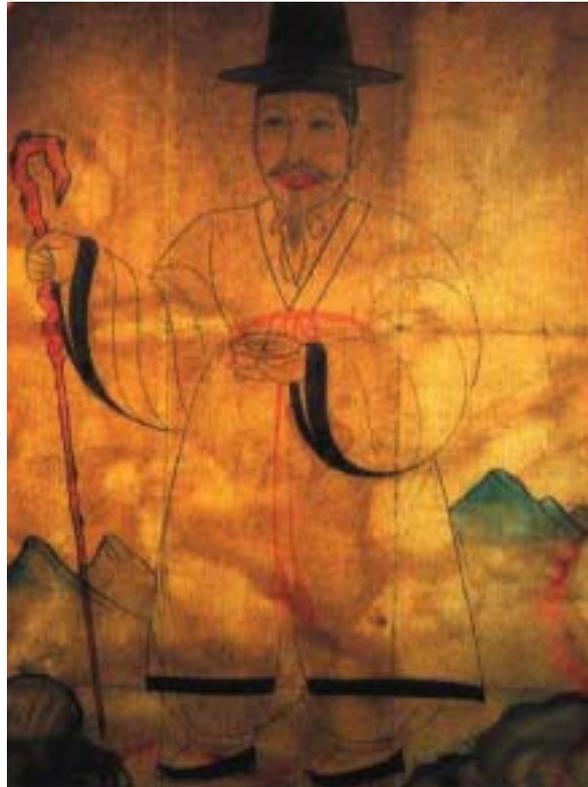


사진4. 지리·천문 신장

인조 9년(1631)에는 반란자들이 지남철로 택지(擇地)한 뒤 도읍을 정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숙종 16년(1690)에는 남서문(南西門)을 여는 문제에 대해 “...손방(巽方)·사방(巳方)에 문을 내면 집이 이롭지 않다는 말이 있다. 나라의 도성은 사가(私家)의 집과 다르기는 하나, ... 지관들에게 물어 그 방위를 알고 나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아 뗏자리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상 생활에서 집터를 잡거나 문을 내는 것에 이르기까지 윤도로 방향을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조 7년(1731)에 허원(許遠)이라는 사람이 새로 지남철을 만들었는데, 해의 그림자를 취하여 남북을 정하니 그 법이 아주 정밀했다. 또한 영조 18년(1742)에는 관상감(觀象監)에서 중국에서 구해 온 천문도(天文圖)와 5층 윤도는 모두 천문·지리의 쓰임에 요긴한 것이므로 본떠 만들기를 청해 허락했다.



『영조대왕실록(英祖大王實錄)』 권 56, 영조 18년 11월 20일 을해

『영조대왕실록(英祖大王實錄)』 권 56, 영조 18년 11월 20일 을해

이러한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에 윤도가 많이 만들어졌으며, 천문학을 담당하던 관상감에서 그러한 작업을 맡아 했음을 알 수 있다. 관상감에서 윤도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윤도에 별자리로 점을 치는 점성술의 요소와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절후(節侯) 등이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조 13년(1789) “형국(形局)과 음양(陰陽)은 서로 안팎이 되므로 어느 한쪽을 폐지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서 그 경중(輕重)을 논한다면 형국은 체(體)이자 본(本)이고, 음양은 용(用)이자 말(末)이다. … 대체로 분금(分金)을 하는 법은 지극히 미묘하여 요새 사람 중에는 제대로 알고 있는 자가 드물다. 더구나 120간지(干支)나 360도수(度數) 역시 어찌 일일이 서로 합치시킬 수가 있겠는가…”하여 윤도 제작에 기본이 되는 분금법이 매우 오묘하여 당시에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이는 윤도의 제작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천문이나 음양오행에 능통한 사람만이 가능한 정밀한 작업임을 말하는 것이다.

정조 14년(1790) 7월에 흥양현(興陽縣) 삼도(三島)에 배가 표류해 왔는데, 필담으로 알아보니 유구국(琉球國) 사람들로 풍랑을 만나서 이 지방에 와 닿았다고 했다. 그들에게 어느 길로 가려고 하느냐 물으니 바닷길로 가겠다고 해서, 윤도를 주자 동남쪽을 가리키며 배를 타고 묘진사(卯辰巳)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글자를 썼다. 다음 해에도 홍주(洪州)에 청나라 산둥(山東) 사람들이 표류해 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책 중에 『나경해정(羅經解定)』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항해를 하는데 윤도와 그에 관한 해설 책자가 요긴한 도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와 주목할 만한 사실은 풍수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윤도가 이제 다양한 용도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뱃사람이나 여행자들이 방향을 보는데 이용하기도 하고, 천문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의 휴대용 해시계에 정확한 남북 [자오(子午)] 을 정하는데도 윤도가 필요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휴대용 해시계에는 간단한 윤도를 함께 붙이는 것이 통례가 되었다.

사대부들은 부채의 끝에 작고 단순한 모양의 2·3층짜리 윤도를 만들어 매달고 다니기도 했다. 부채에 매단 선추(扇錘)는 12방위 또는 24방위만을 표시한 소형指南침으로 가장 실용적인 멋을 가졌으며, 그 아름다운 조각과 더불어 조선의 독특한 휴대용 나침반으로 발달하였다.



사진5. 윤도 · 거울 · 조각이 어우러진 먼경철



사진6. 해시계로 쓰인 선추

이렇듯 윤도는 묘자리를 보는 지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이던 생활 과학 도구였다. 그러나 해방이 된 후 서구 문물의 영향으로 윤도와 관련된 학문들이 미신으로

격하되어 쇠락하면서 윤도 역시 잊혀지게 되었다. 지금은 몇몇 지관들과 가보(家寶)로 소장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에 의해 겨우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다.

2. 고창 윤도의 유래

1) 낙산마을의 역사

전북 고창군 성내면 산림리 낙산마을에서 윤도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여년이 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흥덕현(興德縣)에 속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만든 윤도는 ‘흥덕 패철’이라 불리면서 유명했다.

낙산마을은 전씨(全氏)가 처음으로 들어와 살면서 마을을 형성했다고 하는데, 현재 전씨는 한사람도 살지 않는다. 동네 사람들은 동학농민전쟁 때 관군을 피해 전씨들이 떠나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을이 번창할 때는 백여 가구가 넘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70여 가구가 경주 김씨, 전주 이씨, 밀양 박씨, 청주 한씨 등을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다.

낙산 윤도의 연원은 문헌으로 기록되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낙산(洛山)이라는 마을 명칭, 뒷산의 거북바위, 대대로 내려오는 윤도판과 제작 도구 등으로 보아 여기서 윤도 만드는 일이 필연(必緣)이었다고 마을 사람들은 말한다.

이 마을은 『주역』에 나오는 하도낙서(河圖洛書)의 거북이가 솟아나는 형상으로 ‘낙산(洛山)’이라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마을 뒷산인 제성산(帝城山)에는 거북바위가 있는데, 그것은 동서로 놓여 있고 등에는 7개의 구멍이 파져 있다. 그 위에 완성된 윤도를 놓으면 남북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마을에서 만든 윤도를 그곳에 놓고 검사해 보면 남북이 잘 맞지 않지만, 낙산 마을에서 만든 윤도는 정확히 맞는다고 한다. 이같은 바위가 인근 부덕리 박갑산과 칠성골의 논바닥에도 7개나 있다고 한다.



사진7. 300여 년 이상 윤도를 만들어 오고 있는 낙산마을

2) 낙산마을 윤도의 전승

낙산마을에서 윤도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전씨(全氏) 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처음 마을에 전씨들이 들어와 살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마을이 형성되면서부터 윤도를 제작하였던

같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했는지 알 길이 없고, 다만 전씨가 작업을 하다가 같은 마을에 사는 한씨(韓氏)에게 전수시켜 일을 계속하게 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한씨는 서씨(徐氏)에게 윤도 만드는 기술을 물려주었고, 서씨는 다시 한씨 성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윤도장 일을 전수하였다. ‘한운장’이라고 알려진 이 한씨는 재주있는 자식이 없자, 윤도 일을 같은 마을의 김권삼(金權三)에게 물려주었다. 김권삼이 바로 윤도장 김종대의 조부이다.

중년이 되어 한씨로부터 기술을 배운 김권삼은 네아들 중에 손재주가 있던 둘째 아들 김정희(金正義)에게 일을 물려주었다. 손재주가 좋고 한학(漢學)에 밝았던 김정희는 20세가 넘어 일을 시작해 65세로 작고할 때까지 많은 양을 제작하였다. 그는 일반 윤도 이외에도 정교하고 사실적인 조각 기법이 필수적인 선추·면경철 등도 다양하게 제작하였다. 윤도에 대한 수요가 많아 혼자서 일을 처리하기 힘들 때면 장조카가 치목(治木) 등을 거들어 주었다.



사진8. 마을 뒷산의 거북바위

김정희의 윤도 제작이 처음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한국일보 주최 공예 대회에 출품하여 2등으로 입상하면서였다. 당시 입상을 계기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으나, 1년 후인 1972년 김정희가 사망하여 없던 일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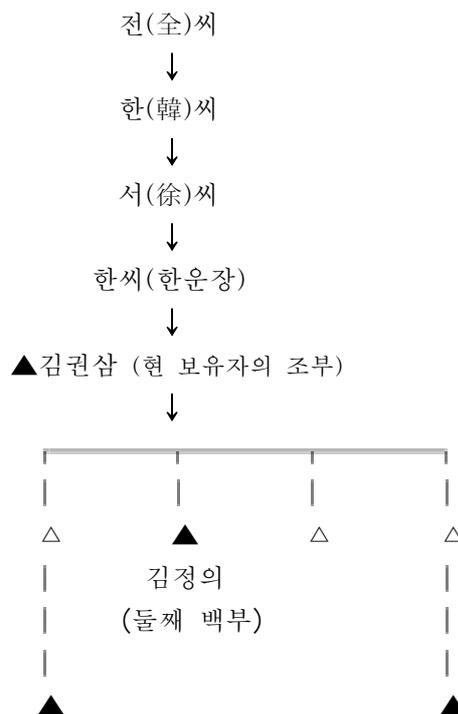
사진9, 10. 면경철(김정희의 작, 전·후)



사진11. 300여 년째 이어온 낙산마을의 윤도
(위쪽-한씨 작, 왼쪽-김정의 작, 오른쪽-보유자 김종대 작)

김정의는 외아들에게 기술을 물려주고 싶어했으나, 그의 아들은 윤도에 대한 관심과 소질이 없었고 성질이 급해서 윤도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김정의를 돕던 장조카는 김정의와 비슷할 만큼 나이가 많아 전수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대신 성격이 느긋하고 손재주도 좋은 막내 동생의 아들인 김종대에게 제작 공구를 물려주고 전수시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윤도장의 맥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게 되었다.

■ 윤도장 전승 계보 ■



(중형)

김종대
(보유자)
↓
▲
김희수
(이수자)

보기 ↓ : 기술 및 제작도구 전수
▲ : 윤도일에 종사한 김종대의 가계

윤도 제작 기술이 가문을 바뀌어 가며 전수되면, 윤도 제작에 필요한 모든 공구와 윤도판도 그대로 전달되었다.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듯이 모든 도구는 혈연적인 관계와는 상관없이 그 기술을 전수받은 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던 것이다. 몇 백년이 지나는 동안 선조들의 손때가 묻어 반들거리는 각종 도구와 날이 닳을대로 닳은 밀칼과 조각칼 등은 윤도 제작의 역사를 말없이 대변해 주고 있다. 윤도장의 전승 계보는 바로 이 제작 도구를 누구에게 물려주었느냐를 따지면 명백해진다. 즉 제작 도구의 계승이 왕의 옥새(玉璽)처럼 이 마을에서 윤도장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일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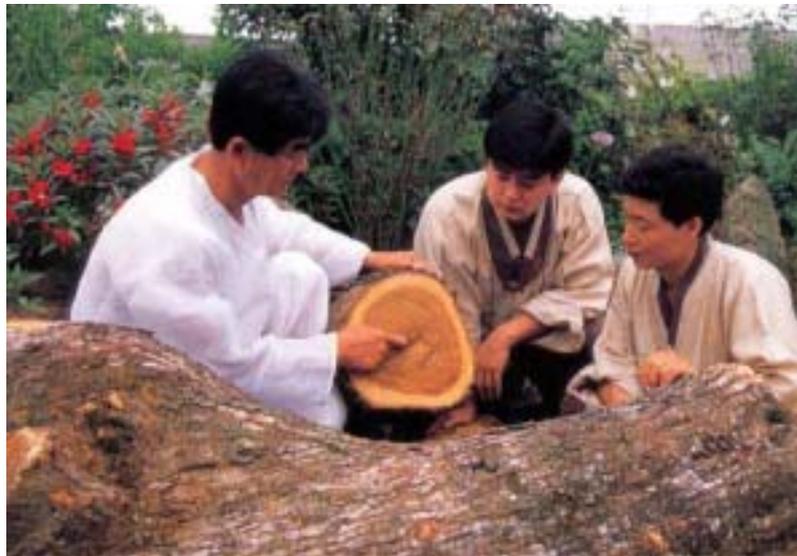


사진12. 윤도장 보유자 김종대, 이수자 김희수, 전수장학생 김재환



사진13.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각종 도구

예전에는 윤도를 제작하는 곳이 전국에 여러 곳이 있었다. 김종대는 윗대 어른들로부터 윤도 만드는 곳이 이북에도 있었고, 전북 무주와 경상도에도 있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했다.

그 중 무주에서 만들어진 윤도는 현재도 많이 볼 수 있다. 고창 윤도가 대추나무를 주재료로 하는 반면, 무주의 윤도는 박달나무를 재료로 만들었다. 박달나무는 대추나무에 비해 가볍지만 무르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고창 것은 방위를 자(子)·오(午)로 표시하는데, 무주 윤도는 동(東)·서(西)·남(南)·◇으로 표시하였다. 또 고창의 윤도는 둥근 평철 뿐만 아니라 선추·명경철·거북철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지만, 무주의 윤도는 작은 층수의 평철만 만들었으며 모양이 투박하고 정확성이 떨어진다.



사진14. 무주에서 제작된 윤도

II. 윤도의 구성과 원리

1. 윤도의 구성

윤도는 중심에 자침을 두고 24방위를 기본으로 여러 개의 동심원에 쓰여진 방위(方位)들로 구성되어 있다. 거기에는 음양(陰陽)·오행(五行)·팔괘(八卦)·십간(十干)·십이지(十二支) 및 24절후(節候)가 조합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때문에 윤도는 고대 동양인들이 우주의 순리와 법칙을 이해하고,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로 체계화한 음양오행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간지(干支)

천간(天干: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과 지지(地支: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를 말한다. 중국 은나라 갑골문자(甲骨文字)에 간지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간지가 실제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리고 한(漢)나라 이후 음양오행가(陰陽五行家)들의 참위학(讖緯學)에 의하여 일상생활에 쓰이는 달력 및 길흉화복을 판단하는데까지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를 전후하여 간지가 시간과 방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측된다.

간지에 의한 좌향·방위 표시 방법은 역(曆)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양력(東洋曆)의 속신(俗信)은 모두 간지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진15. 십이지 (十二支)

2) 8괘(八卦)

8괘의 근원은 <—> 로 나타내는 양의 부호와 <— —> 로 나타내는 음의 부호를 합친 것으로, 8괘의 상(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자연 현상이다. 그리고 8개의 각 괘는 부모나 몸의 각 부분에 배당되기도 하고, 각기 특수한 성질과 방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가축을 포함한 조수(鳥獸)의 이름이 여기에 종합되기도 한다. 8괘에는 배치되는 것들을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8괘의 각 상(象)

8괘	건(乾)	곤(坤)	진(震)	손(巽)	감(坎)	리(離)	간(艮)	태(兌)
상(象)	☰	☷	☳	☴	☵	☲	☶	☱
자연현상	하늘(天)	땅(地)	천둥(雷)	바람(風), 나무(木)	물(水), 비(雨), 구름(雲), 샘(泉)	불(火), 해(日), 번개(雷)	산(山)	못(澤)
인간관계	부(父)(君)	모(母)	장남(長男)	장녀(長女)	중남(中男)	중녀(中女)	소년(少年)	소녀(少女)
신체부위	머리(首)	배(腹)	발(足)	다리(股)	귀(耳)	눈(目)	손(手)	입(口)
짐 승	말(馬)	소(牛)	용(龍)	닭(雞)	돼지(豕)	꿩(雉)	개(狗)	양(羊)
성 질	건(健)	순(順)	동(動)	입(入)	험(險)(함(陷))	러(麗)	지(止)	설(說)
방 위	북서	남서	동	남동	북	남	북동	서

3) 절후(節候)

24절기는 태양의 황경(黃經)을 기준으로 매달 2개씩의 절기를 배당한다. 태양의 황경이 0°인 춘분이 기준점이 되어 시계 방향으로 15°간격으로 배열된다. 이는 윤도의 기본 24방위와 일치한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윤도의 24방위는 태양의 움직임 즉, 계절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24절기와는 1대1의 대응 관계이다. 풍수에서 절후를 갖고 기후와 풍토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표2> 24절후

계절	봄(春)	여름(夏)	가을(秋)	겨울(冬)
절후	입춘(立春)	입하(立夏)	입추(立秋)	입동(入冬)
	우수(雨水)	소만(小滿)	처서(處暑)	소설(小雪)
	경칩(驚蟄)	망종(芒種)	백로(白露)	대설(大雪)
	춘분(春分)	하지(夏至)	추분(秋分)	동지(冬至)
	청명(淸明)	소서(小暑)	한로(寒露)	소한(小寒)
	곡우(穀雨)	대서(大暑)	상강(霜降)	대한(大寒)

4) 28숙(宿)

28숙은 황도 부근의 별들을 28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정한 별자리로, 28개의 밝은 별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 별들은 그 숙(宿)의 거성(巨星)이라고 한다.

〈표3〉 28숙

정(星)	각항저 (角亢氏)	방심 (房心)	미기 (尾箕)	실벽 (室壁)	두우녀 (斗牛女)	허위 (虛危)	규부 (奎婁)	위양필 (危昂畢)	자참 (猪參)	정귀 (井鬼)	유성장 (柳星張)	익진 (翼軫)
숙(宿)	목금토 (木金土)	월일 (月日)	화목(火木)		목금토 (木金土)	일월 (日月)	목금 (木金)	토일월 (土日月)	화수 (火水)	목금 (木金)	토일월 (土日月)	수화 (水火)

5) 윤도의 기본 24방위

윤도는 자침을 중심으로 동심원의 숫자에 따라 동심원이 하나인 1층에서 동심원이 24개인 24층 윤도, 심지어는 동심원이 36개인 36층 윤도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실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 24방위를 기준으로 8층~9층 정도의 윤도가 흔히 사용된다.

기본 24방위는 ‘정침(正針) 24산(山)’이라 하여 정간과 분금·각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다. 24방위에는 음양, 오행, 팔괘, 십간, 십이지가 들어 있다.

윤도에서 팔괘의 방위를 보면 4정방(四正方)에는 정동(正東)에 진(震:☳)·정서(正西)에 태(兌:☱)·정남(正南)에 이(離:☲)·정북(正北)에 감(坎:☵)을 배치했다. 4우방(四隅方)에는 남동(南東)에 손(巽:☴), 남서(南西)에 곤(坤:☷), 북서(北西)에 건(乾:☰), 북동(北東)에 간(艮:☶)을 배치해 8방(八方)을 삼았다.

십간은 오행에 배분해 갑을(甲乙)은 목(木), 병정(丙丁)은 화(火), 무기(戊己)는 토(土), 경신(庚申)은 금(金), 임계(壬癸)는 수(水)로 하여 각 방위에 배치하였다. 그런데 오행은 동(東)에 목(木)·서(西)에 금(金)·남(南)에 화(火)·북(北)에 수(水), 그리고 토(土)를 중앙에 두고 있다. 때문에 갑을(甲乙)은 동쪽 부근, 병정(丙丁)은 남쪽 부근, 무기(戊己)는 중앙, 경신(庚申)은 서쪽 부근, 임계(壬癸)는 북쪽에 배치한다.

십이지는 자(子)를 정북에 두고 시계 방향으로 30°간격으로 12개를 차례로 배치해 360°가 된다.

그러나 팔괘, 십간, 십이지를 동시에 모두 배치하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생략하는 것이 생기게 된다. 즉 팔괘의 정동(正東)에 진(震☳)·정서(正西)에 태(兌☱)·정남(正南)에 이(離☲)·정북(正北)에 감(坎☵) 등 동서남북 4정방의 자리를 빼고, 십간에서 중앙에 해당하는 무(戊)와 기(己)를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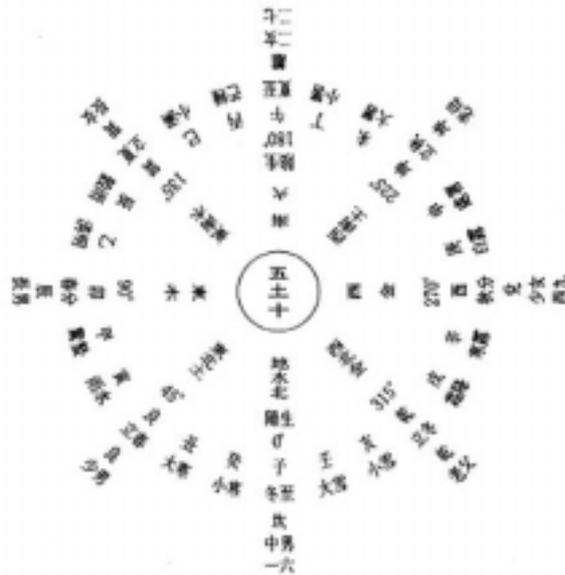


그림2. 윤도의 기본 24방위

그림2. 윤도의 기본 24방위

이리하여 24방위는 한 지점에서 전체 방위(方位) 360°를 24등분하여 각 방위의 간격이 15°씩, 일양시생처(一陽始生處)인 정방위(正方位)를 자방(子方=정북(正北))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계방(癸方), 축방(丑方), 간방(艮方), 인방(寅方), 갑방(甲方), 묘방(卯方=정동(正東)), 을방(乙方), 진방(辰方), 손방(巽方), 사방(巳方), 병방(丙方), 오방(午方=정남(正南)), 정방(丁方), 미방(未方), 곤방(坤方), 신방(申方), 경방(庚方), 유방(酉方=정서(正西)), 신방(辛方), 술방(戌方), 건방(乾方), 해방(亥方), 임방(壬方)을 거쳐 정북인 자방으로 돌아오는 형태이다.

2. 현존하는 윤도의 비교

1) 관상감(觀象監)의 윤도 판본

윤도의 완전한 형식은 도광(道光) 28년 무신(현종 14년, 1848) 관상감에서 만든 교간본(校刊本) 24층 윤도 판본이다. 윤도장 보유자인 김종대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 판본은 정간과 분금을 하고 각자를 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윤도 판본에서는 획수가 많은 경칩(驚蟄)·소서(小暑)·대서(大暑)·처서(處暑)·백로(白露)·한로(寒露)·상강(霜降)·소설(小雪)·대설(大雪) 등의 글자를 경충(敬虫)·소일(小日)·대일(大日)·처일(處日)·백로(白路)·한로(寒路)·상강(相降)·소설(小□)·대설(大□) 등 음(音)이 비슷한 글자나 약자로 쓰고 있다.

2) 한씨(韓氏)의 24층 윤도

조부 김권삼에게 윤도일을 넘겼던 한운장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 약 150~200년 되었

다. 관상감 판본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것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판본에는 ‘황천 8요(黃泉八曜)’가 한층에 들어 있으나, 한씨 윤도에서는 황천과 8요가 분리되어 두 층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관상감 판본에서는 절후(節候)가 규칙적으로 3번씩 반복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어떤 절기는 2번 어떤 것은 3번 반복되는 등 불규칙적인 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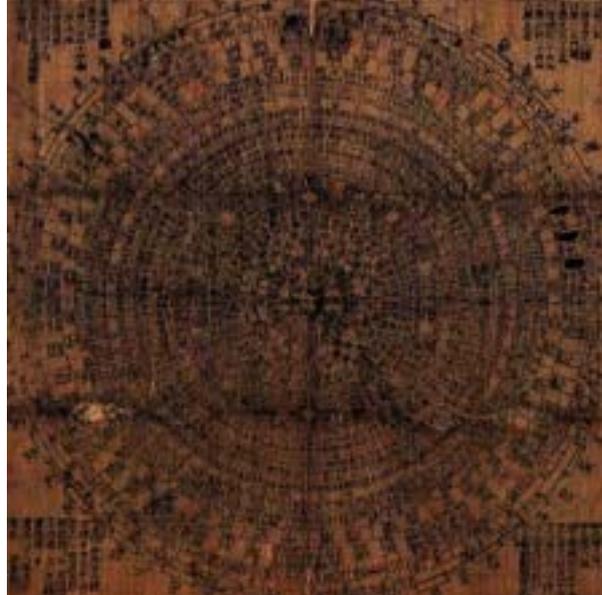


사진16. 관상감 윤도 판본(도광 28년, 1848년 제작)

한편 획수가 많아 작은 칸에 새기기에 불편한 글자를 음이 같은 간략한 자로 대치한 것은 관상감 판본과 같다. 여기서 쓰인 약자(略字)는 인(寅)→인(刃), 경칩(驚蟄)→경칩(京蟄), 곡우(穀雨)→곡우(谷雨), 처서(處暑)→처서(處暑)→백로(白露)→백로(白路), 한로(寒露)→한로(寒路) 등이다.

〈표4〉 관상감 판본 24층 윤도와 청나라 윤도의 비교

층수	관상감 판본	청나라 윤도	층수	관상감 판본	청나라 윤도
1	태극(太極)	천지指南침 (天池指南針)	13	절후(節侯)	인반뇌공중침 (人盤賴公中針)
2	8괘(八卦)	선천 8괘 (先天八卦)	14	기갑자법 (起甲子法)	
3	황천8요(黃泉八曜)	지지 12위 (地支十二位)	15	관금반투지괘 (管禽反透地卦)	37병기 (三七乘氣)
4	8택문로(八宅門路)	좌가 9성 (坐家九星)	16	8문(八門)	국조신도 (國朝新度)
5	선천 12지 (先天十二支)	최관천성 (催官天星)	17	녹마귀(祿馬貴)	금성계위 (禽星界位)
6	봉침 24산 (縫針二十四山)	지반정침정음정양 (地盤正針淨陰淨陽)	18	3기(三奇)	천반양공봉침 (天盤楊公縫針)
7	정침 24산 (正針二十四山)	사시절기 (四時節氣)	19	6친(六親)	분야병차사 (分野併次舍)
8	천성(天星)	지기천산처 (地紀穿山處)	20	봉침 120 분금 (縫針百二十分金)	외반분금 (外盤分金)
9	태골룡(胎骨龍)	둔갑 9궁 (遁甲九宮)	21	정침 120 분금 (正針百二十分金)	천기영축룡 (天紀盈縮龍)
10	천산(穿山)	내반분금 (內盤分金)	22	360도 (三百六十度)	혼천성오행 (渾天星五行)
11	240 분금 (二百四十分金)	순포평분룡 (順佈平分龍)	23	도숙오행 (度宿五行)	개희도(開禧度)
12	투지(透地)	내음오행 (納音五行)	24	개희도 28숙 (開禧度二十八宿)	좌혈길흉 (坐穴吉凶)
			25		28숙 점도 (二十八宿占度)

한씨의 24층 윤도는 자침 부분이 없어지고, 나무판을 여러 겹 붙여서 만들어 손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전하는 윤도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으며, 가장 층수가 큰 24층이라는 점에서 유물로서 의의가 있다. 현재 보유자가 9층 이상 큰 윤도를 제작할 때는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사진17. 한씨의 24층 윤도

3) 보유자 김종대의 15층 윤도

김종대가 윤도의 주재료로 쓰는 것은 대추나무다. 그런데 대추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더디게 자라기 때문에 큰 층수의 윤도를 만들 목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크게 만들어야 11층이면 그만이다. 백부 김정외도 큰 목재를 구하지 못해 24층까지 만들지 못했다고 한다.

윤도의 층수는 주문자의 주문에 따라 달라진다. 윤도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각자 필요한 층수를 정해 가지고서 오는데, 지관들은 9층을 많이 찾는다. 지관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8요수(八曜水) → 황천(黃泉) → 쌍삼오행(雙三五行) → 봉침(縫針) 24산(山) → 정침(正針) 24산 → 72천산(穿山) → 중침(中針) 24산 → 60투지(透地) → 정침 120분금(分金)이다. 이외에 특별한 주문 사항이 없이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주로 5층·7층 윤도를 만든다. 5층 윤도를 만들 때는 8요수 → 황천 → 정침 24산 → 60투지를 넣고 7층 윤도는 8요수 → 황천 → 쌍삼오행 → 봉침 24산 → 정침 24산 → 72천산 → 60투지를 넣는다.



사진18. 김종대의 15층 윤도

김종대가 윤도를 만들 때는 한씨가 만든 24층 윤도와 도광(道光) 28년 윤도 판본을 참고로 한다. 들어갈 층수를 정하거나 정간을 하는 데는 한씨 윤도를 참고하고, 글자를 넣을 때는 도광 윤도 판본을 갖고 확인한다. 대체로 한씨 윤도가 교과서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 김종대가 만든 윤도와 도광 28년 윤도 판본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도광 28년 윤도 판본에서는 자침이 들어가는 태극(太極)도 층수에 포함시켰으나, 김종대는 층수 집계에서 제외시켰다. 또 도광 28년 윤도 판본에서는 황천 8요가 한 층으로 되어 있으나, 김종대는 한씨 윤도와 마찬가지로 8요와 황천으로 분리해 두 층으로 배치한다. 이때 8요에 들어가는 것은 오(午), 사(巳), 묘(卯), 해(亥), 유(酉), 신(申), 인(寅), 진(辰)이다. 황천은 8괘(卦)와 도광 28년 윤도 판본의 황천을 더한 것으로, 간(艮)·갑계(甲癸)·간(艮)·손(巽)·병을(丙乙)·손(巽)·곤(坤)·경정(庚丁)·곤(坤)·건(乾)·임신(壬申)·건(乾)이다. 한편 도광 28년 윤도 판본에는 24층의 맨 끝에 오행(五行)을 배치하지만, 김종대는 3층에 배치한다. 이것을 쌍삼오행이라 하며, 수 → 금 → 화 → 목이 4번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나 도광 윤도 판본의 맨 끝 도숙오행에서는 토·금·수·화·목이 반복되는데, 분금 간격이나 그 주기가 매우 불규칙하다.

김씨 집안의 윤도와 한씨가 만든 윤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두 집안의 작품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는 바로 건(乾)의 각자한 방법이다. 한씨 윤도의 건(乾)자는 김씨 집안에서 한 것보다 빼침이 작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그리고 김씨 집안 3대가 만든 작품에도 각각 특징이 있다. 백부는 조부보다도 각(刻)하는데 뛰어나 보다 힘있고 수준급이었다. 백부의 작품은 작은 나무에 많은 층을 만들고 글자를 새겨 글자가 뾰뾰하게 박혀 있지만, 글자 하나 하나가 선명하며 정렬된 느낌을 갖게 한다. 이에 비해 김종대의 각자는 조금 느슨한 듯 보인다. 김종대와 백부의 작품은 축(丑)자를 보고 구분할 수 있다. 백부는 이것을 중(中)에 가깝게 새기는데 비해, 김종대는 축(丑)자 모양을 제대로 살려 새기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하다.

예전에 만들어진 작품들이 수리가 들어올 때면 이렇게 각 작품의 특징을 살펴 한씨·조부·백부가 만든 것을 판별한다.

- 각자(刻字) 비교1 - 한씨의 건(乾)은 김씨 집안 것보다 빼침이 작다.



사진19. 한씨의 건(乾)



사진20. 김중대의 건(乾)

- 각자(刻字) 비교2 - 김정의를 축(丑)은 중(中)에 가깝고, 김중대의 각자는 축자가 제대로 살아있다.



사진21. 김정의를의 축(丑)



사진22. 김중대의 축(丑)

3. 윤도 사용의 실제

윤도는 단순히 방향만을 표시한 1층 윤도부터 중국에서 쓰였다는 36층 윤도까지 여러 종류가 있다. 김중대에 따르면 뱃사람들과 풍수가들이 사용하는 윤도가 달랐으며, 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층수만을 넣어서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였다고 한다.

윤도를 이용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것을 모두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윤도의 이용도 단지 풍수가들이 지세를 잡는데 그치고 있다.

그래서 윤도의 사용법에 대해서 현재 지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9층 윤도를 그들이 쓰는 방법과 명칭으로 설명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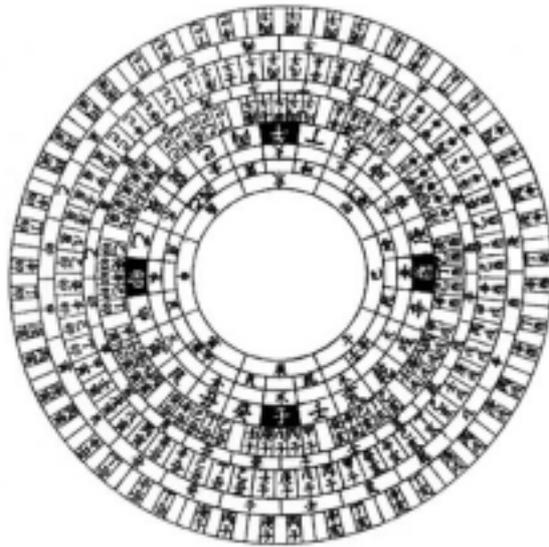


그림3. 현재 지관들이 많이 쓰는 9층 윤도의 구성

그림3. 현재 지관들이 많이 쓰는 9층 윤도의 구성

1층·2층은 팔요(八曜)와 황천(黃泉)이다. 팔요는 뿔자리나 집터를 잡을 때 등진 방위인 좌(坐)를 본다. 황천은 자리잡은 위치에서 바라보게 되는 앞면인 향(向)을 잡을 때 쓰인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해치는 독하고 모진 기운인 살(殺)이 드는 방향을 살피는데, 그것은 8층의 천반봉침(天盤縫針)으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좌(子坐)의 경우 팔요의 진(辰)방향이 살에 해당되므로, 이 방향으로 물이나 바람이 오고 가는 것을 꺼린다.

3층은 쌍삼오행으로, 만물을 생성하고 만상(萬象)을 변화시키는 다섯가지 원소인 수·금·화·목·토 오행의 삼합(三合)을 본다. 삼합이란 오행의 같은 원소를 세 개 연결해 정삼각형을 이루면 길지(吉地)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는 방향인 자좌오향(子坐午向)의 경우, 오행의 수(水)에 해당하고, 3층에서 수(水)에 해당하는 방위인 신(申)·진(辰) 방향에 물이나 산·인공 비석 등이 조화를 이루면 좋다는 것이다.

4층은 정침 24산 또는 지반정침(地盤正針)이라고도 하는데, 좌향(坐向)을 잡는 기본 24방위를 가리킨다. 주로 용(龍 : 풍수에서 산이나 능선을 용이라고 한다)이 오는 방위를 쟀다. 보통 뿔자리에서 시신의 머리 부분은 용의 맥(脈 ; 땅 속으로 흐르는 생기의 움직임)이 들

어오는 방향이고, 다리는 앞의 방위 [향(向)] 을 가리킨다. 좌향은 생기가 모여 있는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5층 72천산(穿山)은 후룡(後龍 : 혈 뒤에 높게 솟은 산)에서 생기가 가장 왕성한 혈로 용이 들어가는 지점인 입수(入首)까지 산의 지형을 보는 것이다. 용은 일반적으로 굴곡이 있는 산이나 능선을 뜻하는데,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이 조화와 변화무쌍함을 보여주듯 산의 움직임도 이와 같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풍수에서는 단순히 산의 흐름을 용이라 하지 않고 묘를 쓸 수 있는 맥이 흘러온 능선만을 용이라고 하며, 평지에도 용의 흐름이 있다. 용이 외형적 모습에서 붙여진 것이라면, 맥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 흐르는 생기의 움직임만을 가리킨다. 맥의 흐름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산이나 언덕에서 물이 갈라지는 곳은 대개 맥이 지나가는 곳이다.



사진23, 24, 25. 운도를 이용해 좌향(坐向)을 살피고 있다.

6층은 중침(中針) 24산 또는 인반정침(人盤正針)으로 사(砂)를 볼 때 사용한다. 사(砂)는 일정한 땅의 산수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혈(穴) 주변 환경을 뜻한다. 옛날 사람들이 풍수를 가르칠 때 모래 위에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어 설명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7층은 60투지(透地)로 입수(入首)에서 혈(穴)까지의 방위를 본다. 용과 맥이 흐르다가 보통 물을 만나면 멈추는데, 이때 그 멈춘 자리가 기(氣)가 모여 있는 곳이다. 양택(陽宅 ; 산 사람의 집자리)이나 음택(陰宅 ; 뫼자리)은 숨쉬듯 활발하게 살아있는 바로 이러한 생기처 [혈(穴)] 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8층은 봉침(縫針) 24산 또는 천반봉침(天盤縫針)으로 득수(得水)와 파구(破口) 등 물의 방향을 살피는데 사용한다. 대개 혈 앞으로 흐르는 물 가운데 혈 앞에서 보이는 곳을 득(得)이라 하고, 그 흐름이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곳을 파(破)라고 한다. 풍수에서 물이 없으면 기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물은 필수적이다. 물이 길(吉)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좋은 터이고, 흉방(凶方)으로 와서 흉방으로 나가면 나쁜 터가 된다. 1·2층의 팔요·황천 살을 살필 때도 이용된다.

9층은 정침 120분금(分金)으로 정확한 좌향을 결정한다. 하관(下官)을 할 때 오행을 기본으로 망자의 생년(生年)을 보아 생(生)하게 방향을 맞추어 약간 틀어 주거나, 길(吉)한 방향으로 관의 좌향을 결정하는데 쓰인다.¹⁾

1) 위의 내용은 이수학회에서 발간한 『풍수정설』 과 풍수학회 홍순영 회장의 도움말로 정리한 것이다.

Ⅲ. 윤도 제작 도구와 재료

1. 제작 도구

김중대가 쓰는 도구들은 관상감 윤도 판본과 함께 모두 선대(先代)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적어도 2~300년 되었다. 날이 무디어진 것은 갈아 쓰거나 손잡이 등은 새로 맞추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예전의 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 한씨가 죽으면서 조부에게 맡겼던 도구가 백부 김정의를 거쳐 지금 김중대까지 3대째 전해진 것이다. 이 도구 자체가 윤도 제작 기술의 정통성을 말해 주고 있다.

1) 대추나무를 다듬는 도구

① 내리걸이톱

대추나무와 대나무를 자르거나 다듬을 때 쓴다. 내리걸이톱은 톱날에 따라 두가지 종류가 있다. 톱날의 개수가 많으면 자르는 톱이고, 톱날의 개수가 적고 넓은 것은 켜는 것이다. 내리걸이톱은 두사람이 위아래로 잡아당기면서 사용한다. 둘이 잡아당기니까 힘이 안 들어 좋다.

대추나무는 단단해 두 사람이 톱질을 해도 잘 잘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추나무를 벨 때나 적당한 크기로 자를 때, 즉 치목(治木)할 때는 내리걸이톱을 쓴다. 치목이 끝나고 완전히 건조된 대추나무를 다듬거나 몸체에서 뚜껑을 떼어낼 때도 소형 내리걸이톱을 사용한다.



사진26. 두 사람이 내리걸이톱으로 나무를 자른다.



사진27. 자르는 톱날(위)과 켜는 톱날



사진28. 소형 내리걸이톱은 혼자서도 사용한다.

② 자귀

짜구라고도 한다. 대추나무 외곽의 백변을 떼어 내는데 쓴다. 대추나무를 자르면 중간 부분은 단단하고 붉은색을 띠고 있고, 바깥 부분은 겉껍질과 함께 무른 흰 부분이 있다. 이 흰 부분을 백변이라고 한다. 백변은 안쪽 붉은 부분에 비해 단단하지 않고 잘 트기 때문에 윤도를 만드는데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대추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자귀로 백변을 떼어 낸다.



사진29. 자귀



사진30. 자귀로 대추나무의 백변을 떼어 낸다.

③ 작두

대추나무를 원형(圓形)으로 자르거나 혹은 모양을 낼 때 쓴다. 대추나무는 결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작두질을 때는 결을 찾아가며 다듬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끄럽게 다듬어지지 않고 조각이 떨어지기도 한다.



사진31. 작두



사진32. 작두를 사용해 윤도의 모양을 만들어 낸다.

④ 밀칼

밀칼은 대추나무가 어느 정도 다듬어진 다음, 정간과 각자할 면을 매끄럽게 다듬는데 쓰는 칼로 대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 사용할 때는 대추나무와 날을 90°가까이 세워서 쓴다. 밀칼의 크기는 16cm 내외이며 날이 짧이 닳아 있다.



사진33. 밀칼



사진34. 밀칼로 표면을 대패질하듯 매끄럽게 다듬는다.

⑤ 끌

뚜껑의 홈이나 자침을 넣는 중앙원을 파낼 때, 또는 윤도의 윗면을 평평하게 고를 때 쓴다. 모양은 조각칼의 평도(平刀)와 같은 형태이다. 매일 쓰고 나면 한번씩 무디어진 날을 바로 숫돌에 간다.



사진35. 각종 끌



사진36. 끝은 홈을 내거나 표면을 고를 때 사용한다.



사진37. 끝은 자주 숫돌에 갈아 쓴다.

⑥ 좌대(座臺)

윤도를 만들 수 있게 웬만큼 다듬어진 대추나무는 작고 단단하여 톱질과 끌질을 하기가 여간 거북하지 않다. 그래서 좌대를 만들어 대추나무를 고정시켜 끌질이나 톱질을 용이하게 했다.

직사각형 모양이며, 한쪽에 둥글게 홈이 파여 있어 거기에 원형으로 다듬어진 대추나무를 고정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크기는 세로 71cm×가로 30cm×높이 13cm, 홈의 지름은 약 23cm 정도이다.



사진38. 큰 좌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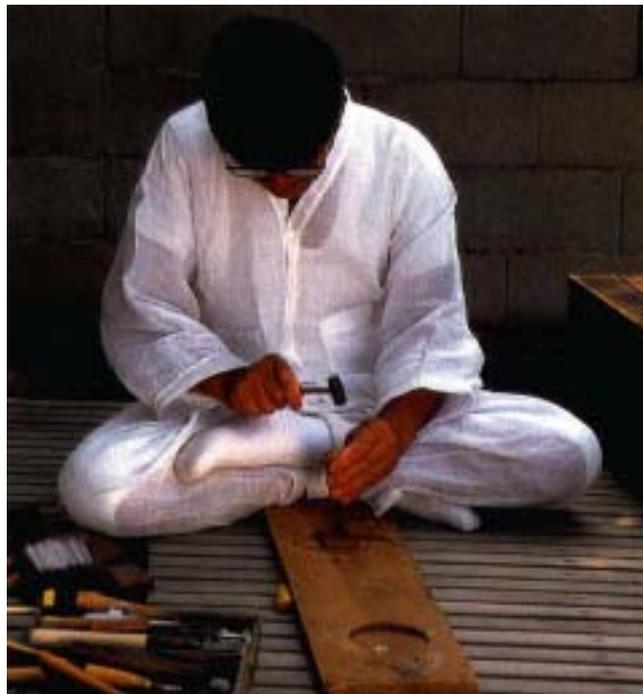


사진39. 작은 좌대



사진40. 선대부터 쓰던 좌대

⑦ 금긋기(금그므개)

몸체에 계단식 표시가 있고 끝은 꼬부라져 있어 일정한 간격과 두께를 표시하기에 편리하다. 주로 윤도의 몸체와 뚜껑을 분리하기 위해 뚜껑의 두께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사진41. 금긋기(금그므개)



사진42. 금긋기로 뚜껑의 두께를 표시한다.

2) 정간(定間)과 각자(刻字)하는 도구

① 윤도 판본

김종대가 소장하고 있는 윤도(輪圖) 판본은 ‘도광 28년 무신 본감 교저개간(道光二十八年戊申本監校著改刊)’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 헌종(憲宗) 14년(1848)에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 역시 다른 도구들과 함께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24층으로 된 이 윤도 판본은 정간과 각자의 기본틀이다. 그 내용은 앞절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생략한다.

② 도래 송곳

도래 송곳의 날모양은 삼각형이고, 나무에 흠이 있을 때 파내고 메우는데 쓰인다. 또한 선추의 구멍을 만들 때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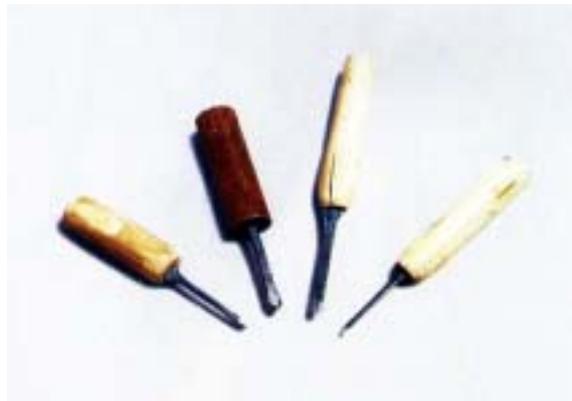


사진43. 도래 송곳



사진44. 도래 송곳은 선추의 구멍을 뚫을 때도 사용한다.

③ 걸음쇠

걸음쇠는 ×자 모양이며 강철로 만들었다. 나무의 크기에 따라 층수를 정해 동심원을 그리거나, 동심원을 나누어 정간하는데 사용한다. 원의 크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가 있다. 단단한 대추나무에 쓸 수 있도록 끝이 뾰족하고 날카롭다. 걸음쇠가 험령하면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운데 접합 부분을 자주 두들겨 조여 준다. 걸음쇠 큰 것은 크기가 24.2cm 정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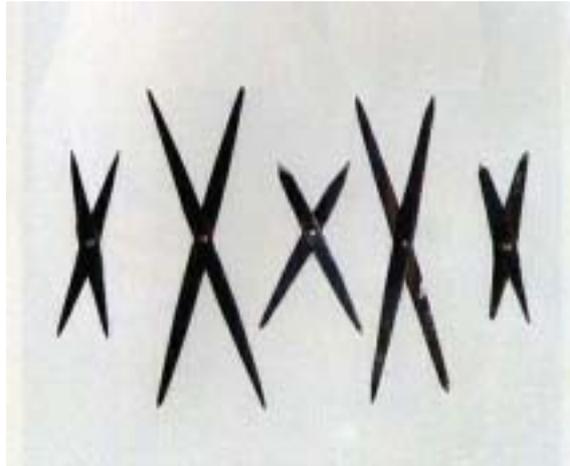


사진45. 걸음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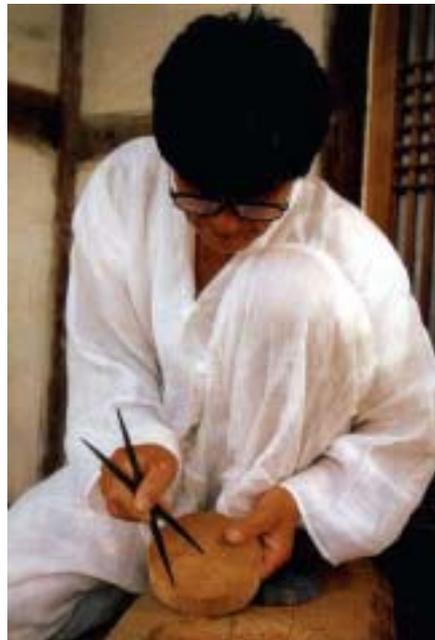


사진46. 걸음쇠는 동심원을 그리거나 정간할 때 쓴다.

④ 중앙침, 정간대, 정간 줄긋기

여러 개의 동심원을 그리고 동심원을 일정한 간격으로 정간하고 분금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기준점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 만약 기준점이 바뀌면 정간과 분금 모든 것이 어긋나게 되어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윤도 제작의 만사가 허사로 돌아간다. 그래서 중앙 기준점에 정간대를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중앙침이 중요하다.

정간대는 일종의 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쇠를 만들었다. 중앙 기준점에 정간대를 중앙침으로 고정한 후 360°돌려 가면서 정간과 분금을 한다.

정간 줄긋기는 날카로운 쇠로 만든 송곳으로, 중앙침으로 정간대가 고정되면 정간 줄긋기로 선을 그어서 표시한다.



사진47. 기준점에 정간대를 중앙침으로 고정시키고 줄긋기로 선을 긋는다.

⑤ 각자기

볼펜의 1/2크기이며 강철로 되어 있다. 끝부분이 창칼처럼 어긋나게 날이 서 있다. 손잡이 부분에는 잡기 쉽고 미끌어지지 않게 실을 감았다. 대추나무에 글자를 새길 때는 각자기의 날이 날카로와야 제대로 새길 수 있으므로, 날이 무디어지면 바로바로 숫돌에 갈아 쓴다.



사진48. 각자기



사진49. 각자기로 글자 새기는 모습

3) 자침(磁針)을 만드는 도구

① 자침 좌대

가공하지 않은 굵은 통나무 토막으로, 한쪽에 손가락 하나 정도 크기로 쇠기둥이 솟아 있다. 그리고 나무토막 곳곳에 얇은 홈과 구멍이 여러 개 파여 있다. 쇠기둥은 쇠바늘을 달구어 편편하게 펼 때 쓰는 받침대이다. 얇고 긴 홈들은 퍼진 쇠바늘을 자침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 줄로 밀 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검게 탄 구멍은 숯불을 올려놓는 자리로, 자침이 완성된 후 자침에 색을 입힐 때 필요하다. 크기는 30cm×20cm×20cm, 솟아 있는 쇠기둥은 세로 2.5cm×가로 2.5cm×높이 1.8cm이다. 얇은 홈은 대략 2cm×4cm 정도의 크기다.



사진50. 자침 좌대

② 망치

자침을 만들 때 쇠바늘을 두들겨 펴는데 사용한다. 모양은 보통 망치와 같으나, 크기가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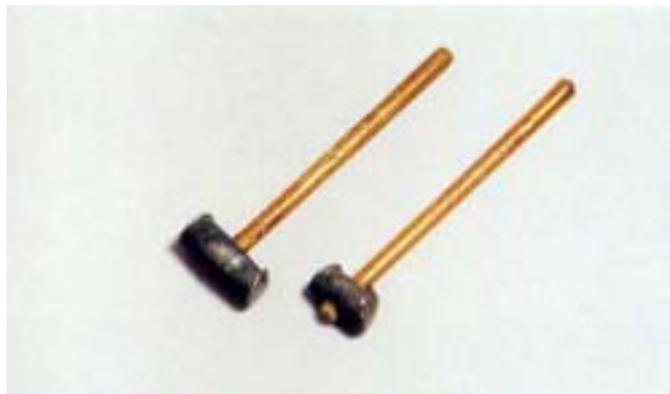


사진51. 망치



사진52. 망치로 쇠바늘을 납작하게 편다.

③ 활비비(돌대 송곳)

자침의 중앙에 주석봉을 넣기 위해 구멍을 뚫을 때, 또는 자침을 얹힐 받침대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한다. 활비비 바늘의 쇠는 강철이라 솥돌에 갈아주어야 날이 선다. 사용할 때는 매우 정밀함을 필요로 하여, 상하(上下) 운동을 제대로 해야 정해진 곳에 정확히 구멍을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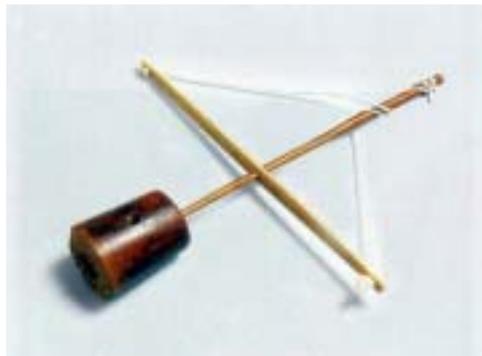


사진53. 활비비(돌대 송곳)



사진54. 활비비로 자침에 구멍을 뚫는다.

④ 집게

자침의 날개를 만들 때, 달구어진 쇠바늘을 집거나 자침의 두께를 줄여서 조절하는데 쓴다. 자침의 중앙에 주석으로 만든 심을 박거나 갈 때도 사용한다. 모양은 보통 집게와 같고, 크기는 15.3cm 정도다.



사진55. 각종 집게



사진56. 자침이 너무 작기 때문에 집게를 이용한다.

⑤ 정(釘)

정은 자침의 중심에 구멍 뚫을 때나 자침의 날개를 만들 때 사용한다. 정의 날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작고 둥근 정은 자침 중심에 구멍을 뚫을 때 쓰고, 끝이 일자형인 정은 자침의 날개 만들 때 쓴다. 끝이 날카로와야 하니까 예전에는 자주 성냥간(대장간)에서 갈아서 사용했지만, 요즘은 무딘대로 그냥 쓴다. 크기는 6cm 내외다.



사진57. 여러 종류의 정



사진58. 정은 자침에 중심 구멍을 내거나 날개를 잘라낼 때 사용한다.

⑥ 줄

줄은 정으로 표시한 곳을 끊거나 면을 고를 때, 또는 날개를 만들 때 쓴다. ‘줄로 민다’·
‘줄로 썬다’라고 표현한다. 줄의 자루는 옛날부터 쓰던 것이지만, 날은 닳으니까 자주 새로운
것으로 교환했다.



사진59. 줄



사진60. 줄은 도구들 가운데 가장 현대적이다.

⑦ 바늘 집게

일반 집게와 같은 모양이나 길이 8.2cm 정도로 작다. 대나무로 만들었으며, 완성된 자침을 집거나 그 외에 작은 것을 집을 때 쓴다.



사진61. 바늘 집게로 자침을 얹친다.

⑧ 자연 자석

한씨가 윤도 일을 할 때 만주에서 구해 온 원석(原石)이라고 하며, 바다에서 구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옛날에도 전해오던 자석이 있었는데, 중간에 대나무 밑에서 분실했다고 한다. 백부는 자석을 뜨거운 곳에 두어도 안되고 찬 곳에 두어서도 안되며, 햇볕에도 노출시키지 말라고 당부했다.

다른 자석을 이용해 침에 자력(磁力)을 입히면 자침이 정확하지 않으나, 이것을 이용하면 매우 정확하다고 한다. 때문에 자력이 강한 다른 자석도 있지만 자침을 만들 때는 꼭 이것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 관상감 윤도 판본과 함께 다시 구할 수 없는 귀한 것으로 여겨 조

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자석을 넣어두는 통도 한씨 때부터 쓰던 것으로, 오동나무로 만들었으며 쇠를 가까이 하면 자력이 소멸된다고 해서 쇠못 대신에 나무못을 써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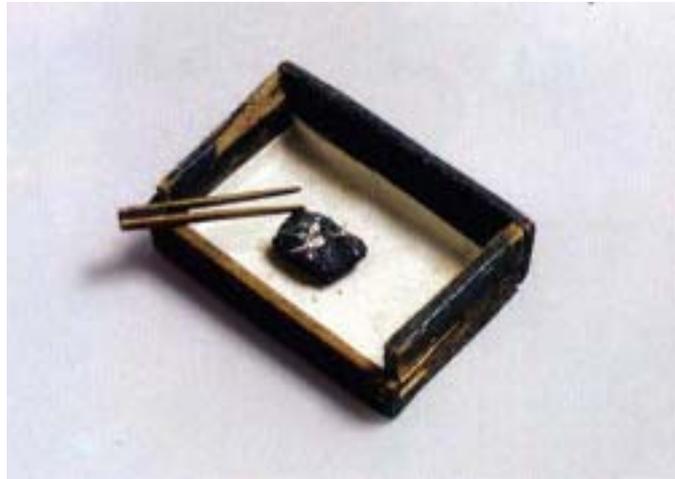


사진62. 대대로 내려오는 자석(원석)

4) 기타 마무리 도구

① 굽개와 솔

윤도에 색을 입히고 나서 불필요한 곳에 들어간 색을 정리하는데 쓰는 도구이다. 정간과 분금, 각자가 마무리되면 윤도의 윗면 전체를 먹으로 칠한다. 먹물이 제대로 마르고 나면 솔로 문질러 분금과 글자 속에 들어간 먹을 빼낸다. 그 다음에 흰색 옥돌 가루를 칠하고 건조시켜 글자 이외에 묻은 흰칠을 굽개로 긁어낸다.



사진63. 옥돌칠이 마르면 굽개로 긁어낸다.



사진64. 먹칠이 마르면 솔로 고루 문질러 준다.

② 가위

보통 쓰는 가위와 같고, 자침이 들어갈 부분에 석유 유리를 다듬거나 그 안에 넣을 종이를 자르는데 쓰인다.



사진65. 자침 덮개 유리와 유리 다듬는 가위



사진66. 사포로 마무리한다.

③ 사포

예전에는 표면이 거칠고 질긴 상어 가죽을 구해 표면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데 썼으나, 지금은 그것을 구할 수 없어 일반 사포를 이용한다.

④ 각종 조각칼

선추와 면경철의 표면과 뚜껑에 각종 문양을 조각할 때 사용한다. 날의 형태는 뾰족한 송곳 모양·삼각형 모양·원형 등 다양하다.



사진67. 각종 조각칼



사진68. 선추와 면경철에 문양을 조각할 때 조각칼을 쓴다.

2. 재료

1) 대추나무

(1) 대추나무 고르기

윤도의 재료로는 대추나무나 회양목·은행나무를 쓰는데, 이 나무들은 눈매가 곱고 단단하여 정교한 조각이 가능한 것들이다. 무주에서 만든 윤도는 박달나무를 재료로 사용했지만, 김종대는 무르고 가볍기 때문에 박달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대추나무만을 고집한다. 왜냐하면 대추나무는 재질이 단단하고 말려 놓으면 잘 트지 않을 뿐 아니라, 비단결같이 윤기가 나면서 오래 갖고 다닐수록 색이 더욱 빨갛고 곱게 나기 때문이다.

대추나무는 예전부터 충북 보은에서 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보은에서는 대추를 팔아 혼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비가 오면 대추가 적게 열리기 때문에 “삼복(三伏)에 비가 오면 보은 처자 운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대추가 많이 생산되었고 쓸만한 대추나무도 많았다. 현재도 보은과 주변의 제천에서 대추나무가 많이 난다.

윤도를 만들 때는 150~200년 이상 된 대추나무를 쓰는데, 나무가 굵으면 좋지만 덜 굵더라도 곧게 한줄기로 자란 것이 좋다. 또한 트거나 웅이 등이 있으면 사용할 수 없고 완전히 속이 짝 찬 것이어야 윤도를 만드는데 적당한 재료가 된다. 그런데 다른 나무들에 비해 대추나무는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수령(樹齡) 200년 이상 되는 굵은 나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설령 수령이 오래된 것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웅이나 썩은 부분 또는 갈라진 부분이 다른 나무에 비해 많다. 때문에 대추나무는 걸만 보아서 그 속을 알 수가 없고, 잘라 보아야만 쓸모가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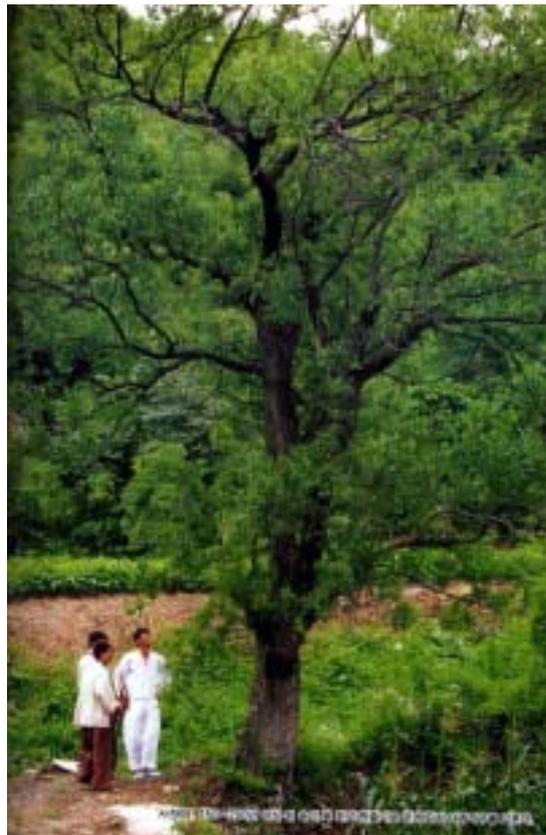


사진69. 150~200년 이상 된 속이 짝 차고 한줄기로 곧게 자란 대추나무를 고른다.



사진70, 71. 대추나무 자르기



사진72. 자른 대추나무 속을 살피고 본다.

(2) 말리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나무를 구입하면, 다음에는 대추나무를 다루기 쉽도록 손질해야 한다. 다른 나무의 경우, 자르지 않고 통나무 상태로 그늘에 두고 말려 쓸 수 있지만, 대추나무는 워낙 단단하고 잘 마르지 않을뿐더러 마른 후에는 더 단단해 톱질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나무를 구해 왔을 때 바로 생목(生木)인 상태에서 운도를 만들기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 놓아야 운반하기도 쉽고 말리기에 용이하다.



사진73. 나무를 마르기 전에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자른 나무는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 사용해야 트지 않는다. 나무를 건조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나무를 베어온 상태 그대로 그늘에서 3년 이상 두고 말리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바닷물이나 저수지에 2~3년 동안 담가 두었다가 건져서 그늘에서 1년 이상 말리는 방법이다. 백부는 마을 앞 저수지에 나무를 담가 두었다가 말려 쓰기도 했다고 한다.

세 번째는 대추나무처럼 잘 마르지 않는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가마솥에 넣고 삶아서 말리는 방법이다. 삶을 때는 먼저 물을 끓인 후에 나무를 넣고 1시간 이상 삶는다. 나무를 넣고 끓이면 나무의 진이 빠져 물이 붉은 색으로 변한다. 오래 삶을수록 진이 많이 빠지고, 진이 많이 빠질수록 건조시키기가 쉽고 트는 것도 적다. 이렇게 삶아서 말리면 생목을 그대로 건조시키는 것보다 시간이 적게 걸린다. 삶지 않고 건조시킬 경우는 2~3년 이상이 되어야 완전히 건조가 되지만, 삶았을 때는 1년 이상이 되면 쓸 수 있다. 김종대의 집 한켠에는 나무를 말릴 수 있도록 헛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몇 년 전에 구입해 건조시키고 있는 나무들이 있다.



사진74. 적당한 크기로 자른 나무

그런데 김종대는 생목(生木) 보다는 고사목(枯死木)이 작업하기에 좋다고 한다. 말라죽은 나무는 가져다 바로 쓸 수가 있으나, 생목은 말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백부는 보은이나 청산 등지에서 고사목을 가져다 썼다고 한다.



사진75. 대추나무를 가마솥에 삶아서 진을 빼고 건조시킨다.

다 마른 대추나무는 내리걸이톱을 이용해 적당한 크기의 선질(가로절단)로 자른다. 눈질(판자식으로 세로 절단)로 자를 경우 여러 겹을 포개서 24층의 윤도까지 만들 수 있지만, 갈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눈질로는 나무를 자르지 않는다. 또 지름을 그대로 쓰면 나무가 터지는 경우가 생기므로, 선질로 자른 나무는 반지름으로 다시 나눈다.



사진76. 그늘에서 말리고 있는 대추나무

그리고 백변을 떼어 낸다. 나무를 말릴 때에는 트는 것을 막기 위해 붉은 나무 속을 둘러싸고 있는 하얀 부분인 백변을 그대로 두지만, 본 작업을 할 때는 백변을 자귀와 작두로 떼어내어 원통형으로 준비한다. 이렇게 대추나무를 지름 그대로 쓰지 않고 반지름으로 나누고, 다시 백변 부분을 떼어 내기 때문에 큰 층수의 윤도를 만들 나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2) 대나무

대나무에는 왕죽과 분죽 두가지 종류가 있다. 왕죽은 아래위의 굵기가 모두 같고, 분죽은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특징이 있다. 두가지 대나무 중에서 윤도의 중앙에 자침을 띄우

고 나서 유리 덮개를 고정시키는데 쓰는 재료로는 결이 좋고 부드러운 분죽을 이용한다.

분죽을 고를 때는 지난 해 봄에 자라서 겨울을 한번 지낸 2년생을 찾는다. 대나무는 표면의 색깔을 보고 그 수령을 알 수 있다. 올 봄에 막 자란 것은 푸른빛이 진하고 1년 이상 된 것은 하얀 분말 같은 것이 묻어 있어 푸른빛이 덜하다. 겨울을 지낸 2년생 대나무는 푸른빛이 조금 줄었으나 아직 하얀 분말이 많지 않은 상태다. 올해 나온 대나무를 쓰려면 겨울에 채취해야 그나마 단단해서 쓸 수가 있고, 봄에 채취한다면 지난해 겨울을 지낸 2년생이 가장 좋다. 새봄에 난 1년생은 연해서 좋지만 삶으면 너무 물러져서 쓸 수가 없다. 반면 겨울을 두 번 이상 지낸 대나무는 단단하고 성질이 강해서 삶아도 연해지지 않고 너무 뻣뻣해서 안된다. 그러므로 2년생으로 겨울을 한번 지내고 다음해 봄에 자른 대나무가 가장 좋은 재료가 된다.

대나무는 톱을 이용해 자른다. 자른 대나무는 밑동 1m부터 위 4m까지 쓸 수 있다. 채취한 분죽은 마디마디를 잘라 세로로 4쪽 낸다. 자른 대나무는 진을 빼고 잘 휘어지고 연해지도록 물에 삶는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서 대나무를 넣어 한참을 삶는다. 잘 삶아진 대나무는 건져 햇볕에 바짝 말린다. 다 마른 대나무는 세로로 조각내서 가늘게 다듬는데, 대나무를 가늘게 다듬는 것을 '실한다'고 말한다. 윤도의 테선으로 쓰는 것은 대나무의 겉대이므로, 속대는 잘 발라내고 가늘게 만든다.



사진77. 작년 봄에 자라 겨울을 지낸 2년생 분죽이 가장 좋다.



사진78, 79. 밀동에서 1m정도 위에서부터 마디마디 자른다.



사진80, 81, 82. 4쪽으로 잘라 삶아 말린다.



사진83, 84. 삶아서 말린 대나무는 속대를 발라내고 가늘게 만든다.



사진85. 걸대로 만든 테선은 부드럽고 잘 휘어져 유리 덮개를 고정하기에 알맞다.

3) 쇠바늘, 유기(鋸器)

쇠바늘은 자침을 만드는데 쓰이고, 유기는 자침을 올려놓는 자침 받침대를 만드는데 쓰인다.

쇠바늘은 화롯불에 달구어 두들겨 납적하게 편다. 이것을 모양내어 자침을 만든다. 근래에는 쇠바늘 이외에도 우산대를 이용하기도 한다.



사진86. 쇠바늘과 주석

유기는 깨진 밥그릇이나 사용하지 않는 수저를 갈아서 사용했다. 유기는 자력(磁力)을 타지 않기 때문에, 자력이 있는 자침의 중심과 자침을 올려놓는 자침 받침대를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요즘은 주석을 많이 사용한다. 주석도 자력을 타지 않기 때문에 받침대의 재료로 적당하다.

4) 유리, 거울

자침을 넣은 중앙원을 덮는데 유리가 쓰이고, 면경철의 한쪽 면에는 거울을 잘라 넣는다.

5) 먹, 옥돌 [옥석(玉石)] 가루, 주사(朱砂)

검은색의 먹, 흰색의 옥돌 가루, 붉은색의 주사는 분금과 각자한 곳에 색을 입힐 때 사용한다. 먹으로는 윤도의 전체를 칠해 표면에 색을 내는데 쓰고, 옥돌 가루는 먹칠을 한 다음 분금과 글자에 색을 입히는데 쓴다. 그리고 24방위 가운데 정방향인 자(子:북)·오(午:남)·묘(卯:동)·유(酉:서) 사방을 나타내는 글자에는 주사로 붉은 칠을 한다.



사진87. 먹, 옥돌가루, 주사

IV. 윤도의 제작 과정

1. 평철

특별한 장식이 없는 원통형 윤도를 평철이라고 한다. 평철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윤도이며, 또한 다른 모양의 것들에 비해 만들어 온 역사도 가장 오래 되었다. 그러나 큰 층수의 평철을 만들 나무를 구하기 힘들어 7층-9층 짜리를 많이 만들고 있다.

1)모양 만들기

선질로 자른 대추나무를 내리걸이톱으로 반지름으로 자른다. 잘라 낸 나무의 면을 보고 트지 않고 웅이 없는 부분에 분도기를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리고, 결을 보아가며 자귀와 작두로 나머지 부분을 떼어내 원통 모양으로 다듬는다.

그런 다음 작두를 이용해 나무의 모양을 원형으로 세밀히 다듬는다. 이때 작두질은 나무의 결을 살피가며 해야 한다. 작두질을 하다가 나무결이 바뀌면 작두날이 잘 먹히지 않고 뺏뺏해지는데, 그러면 나무를 뒤집어 결을 찾아 다시 다듬는다. 만약 결을 무시하고 그대로 작두질하면 나무가 떨어져 나간다.

원형으로 다듬어진 나무는 뚜껑과 몸체의 두께를 생각해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자른 나무의 옆면에 물을 칠해 연해지도록 하여, 왼발로 나무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밀칼을 잡아 매끈하게 다듬는다. 잘 마른 대추나무는 굉장히 단단하므로, 물을 축여 연하게 한 상태에서 갈질을 해야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림4. 대추나무 다듬기



사진88. 완전히 건조된 대추나무



사진89. 대추나무를 반지름으로 자른다.

모양 다듬기가 끝나면 걸음쇠로 뚜껑이 될 부분에 동심원을 그린다. 끌과 정으로 이 부분을 파내는데, 몸체와 닿을 홈의 깊이는 끌로 두 번 파내는 정도면 적당하다. 그리고 금긋기로 뚜껑의 두께를 표시하고 톱으로 몸체와 뚜껑을 분리한다. 톱질을 할 때는 좌대의 홈에 나무를 고정시키고, 위아래(몸통과 뚜껑)로 번갈아 톱질을 해야 일정한 두께로 자를 수 있다. 손이 미끄러지지 않게 물을 칠해 가면서 작업한다. 뚜껑과 몸체 분리가 끝나면 정간을 할 표면도 밀칼로 매끄럽게 다듬는다.



사진90.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린다.



사진91. 자귀로 백변을 떼어낸다.



사진92. 작두로 모양을 다듬는다.



사진93. 자귀와 작두로 다듬어 놓은 나무



사진94. 백변을 떼어낸 나무에 윤도 새길 원을 그린다.



사진95. 작두질할 때는 나무결에 따라서 다듬어야 한다.



사진96, 97. 물을 발라가며 옆면을 밀칼로 곱게 다듬는다.



사진98. 몸체와 당을 흠 파내기



사진99, 100. 뚜껑에 몸체와 당을 흠 파기



사진101. 금곳기로 뚜껑이 될 부분 표시



사진102.103. 몸체와 뚜껑 분리



사진104. 밀칼로 몸체의 표면 다듬기



사진105, 106, 107. 몸체에 뚜껑 덮을 홈 만들기

2)정간(定間) 하기

정간은 중심잡기, 층수 정해 동심원 그리기, 분금(分金)하기 순서로 작업이 진행된다. 윤도는 정간이 생명이며, 정간은 동심원 하나를 최소 1°의 각을 이루도록 360개로 분금해야 하는 매우 정교한 작업이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윤도는 그 생명인 정확성을 잃게 된다.

(1)중심 잡기

윤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듬어 놓은 원통형 나무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잡아 놓은 중심점은 윤도가 완성될 때까지 기준점이 되며, 나중에 자침을 받쳐줄

받침대를 세울 곳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걸음쇠로 사방을 측정하여 중심을 잡아 정확히 표시한다.

(2) 층수 정하기 및 그리기

중심점이 정해지면 걸음쇠로 바깥쪽에서부터 동심원을 그려 들어간다. 이때 몇 층으로 정간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층수를 정할 때 각 동심원 사이의 간격은 각자(刻字)할 글자 수를 고려해, 가장 안쪽 자침이 들어가는 원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한다. 두 글자가 들어가는 층에는 가운데 희미하게 줄을 하나 더 그어 글자를 배분해 각자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정간을 할 때는 한씨가 만든 24층 윤도가 교과서로 이용된다.

이 과정을 연습 없이 바로 할 경우 실수하면 다시 다듬고 준비해야 하므로, 종이와 자투리 나무에 간격을 맞춰 동심원을 그리는 연습을 한 다음 본 작업을 시작한다.

15층 윤도를 만든다면, 자침이 들어갈 곳을 포함해서 16개의 동심원이 필요하다. 이때 자침이 들어가는 원은 층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15개 층의 각 명칭은 다음과 같다.



사진108. 층수 정하기



사진109. 각 층의 간격은 각자할 글자 수를 고려해 정한다.

1층은 8괘(卦), 2층은 8요(曜), 3층은 황천(黃泉), 4층은 선천(先天) 12지(支), 5층은 봉침(縫針;천반(天盤) 24산(山), 6층은 정침(定針;지반(地盤)24산이다. 7층은 중침(中針;인반;(人盤)) 24산, 8층은 72천산(穿山), 9층은 태골용(胎骨龍), 10층은 60투지(透地), 11층은 240분금(分金), 12층은 봉침 120분금, 13층은 정침 120분금, 14층은 360도, 15층은 도숙오행(度宿五行)이다.



그림5. 각층의 명칭



사진110, 111. 걸음쇠 간격을 조절하여 분금한다.

(3)분금(分金)

정확한 분금은 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윤도를 만드는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15개의 동심원을 각각의 법칙에 따라 일정하게 칸을 나누고, 거기에 정확하게 각자를 해

야 윤도가 되는 것이다. 만일 분금이 한치라도 어긋난다면 윤도는 정확성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분금은 매우 정밀해야 하며, 정신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분금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층은 6층 정침 24산이고, 정침 24산 가운데 자(子)가 모든 분금의 기준점이 된다.



사진112, 113. 분금하기

①정침 계열 분금

정침 24산을 걸음쇠로 먼저 6등분하고 6등분한 것을 나누어 12등분하고, 다시 12등분을 24등분하여 등분한 곳에 점을 찍어 표시한다. 걸음쇠에는 각도(角度)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걸음쇠의 간격을 여러 번 조절하면서 정확하게 분금한다.

정침 24에 들어가는 방위는 자방(子方)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계(癸)·축(丑)·간(艮)·인(寅)·갑(甲)·묘(卯)·을(乙)·진(辰)·손(巽)·사(巳)·병(丙)·오(午)·정(丁)·미(未)·곤(坤)·신(申)·경(庚)·유(酉)·신(辛)·술(戌)·건(乾)·해(亥)·임(壬)방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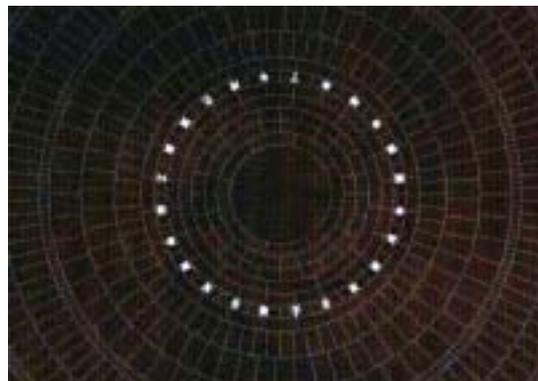


그림6. 정침 24산의 분금

중앙침으로 정간대를 고정시키고 점을 찍어 표시한 부분에 줄긋기로 선을 그어 24등분할 때, 6층 정침 24산과 같이 분금을 일직선으로 그을 수 있는 층들을 '정침 계열'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정침 24산 계열은 8층 72천산 · 10층 60투지 · 11층 240분금 · 13층 정침 120분금 · 14층의 360도이며, 이들 층은 한번에 일직선으로 긋는다.

8층 72천산 분금은 정침 24산의 한칸의 3칸씩 분금하여 72칸을 만든다. 72천산의 기준 방위는 갑자(甲子)로 정침 24산 임방 말(末)에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5칸에 한칸씩을 빈칸으로 남긴다.



그림7. 정침계열 분금

즉 갑자(甲子), 병자(丙子), 무자(戊子), 경자(庚子), 임자(壬子), □, 을축(乙丑), 정축(丁丑), 기축(己丑), 신축(辛丑), 계축(癸丑), □, 병인(丙寅), 무인(戊寅), 임인(壬寅), 갑인(甲寅), □, 정묘(丁卯), 기묘(己卯), 신묘(辛卯), 계묘(癸卯), 을묘(乙卯), □, 무진(戊辰), 경진(庚辰), 임진(壬辰), 갑진(甲辰), 병진(丙辰), □, 기사(己巳), 신사(辛巳), 계사(癸巳), 을사(乙巳), 정사(丁巳), □, 경오(庚午), 임오(壬午), 갑오(甲午), 병오(丙午), 무오(戊午), □, 신미(辛未), 계미(癸未), 을미(乙未), 정미(丁未), 기미(己未), □, 임신(壬申), 갑신(甲申), 병신(丙申), 무신(戊申), 경신(庚申), □, 계유(癸酉), 을유(乙酉), 정유(丁酉), 기유(己酉), 신유(辛酉), □, 갑술(甲戌), 병술(丙戌), 무술(戊戌), 경술(庚戌), 임술(壬戌), □, 을해(乙亥), 정해(丁亥), 기해(己亥), 신해(辛亥), 계해(癸亥), □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10층 60투지의 분금은 정침 24산 두 칸을 5칸으로 나눈다. 즉 정침 24산의 임(壬)방과 자(子)방의 2칸을 합쳐서 5칸으로 나눈다. 방위는 임(壬)방 초(初)에서 갑자(甲子)가 일어나 시계방향으로 돌아간다. 60투지 방위는 72천산과 같고 다만 빈칸 없이 계속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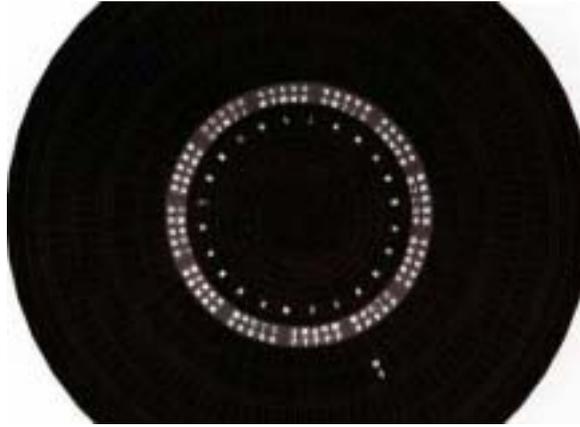


그림8. 72천산의 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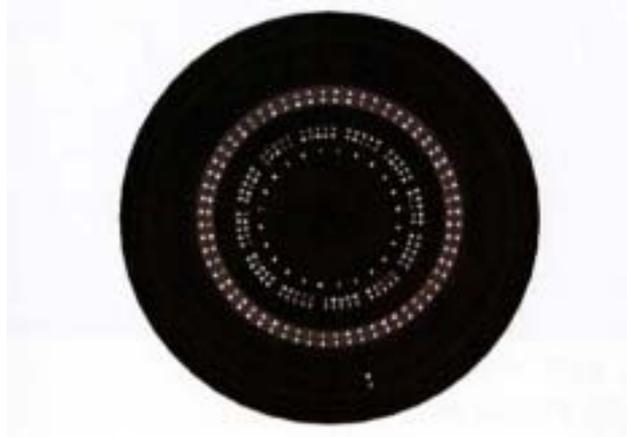


그림9. 60투지 분금

11층 240분금은 정침 24산 한칸을 10칸으로 나눈 것으로, 방위는 들어가지 않는다. 관상감의 윤도 판본에는 240분금에 방위가 들어가지 않는 대신 길흉표(吉凶標)가 들어간다. 길표(吉標)는 <●>, 반길반흉(半吉半凶)은 <->로 표한다고 되어 있으나, 김종대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다.

13층 정침 120분금은 정침 24산 한칸을 5칸씩 분금한 것이다. 시작되는 방위는 갑자(甲子)가 정침 24산 자(子)방의 첫머리에서 시작한다. 즉 갑자·병자·무자·경자·임자·□·병자·□·경자·□·을축·정축·기축·신축·계축·□·정축·□·신축·□·갑인·병인·무인·경인·임인·□·병인·□·경인·□·을묘·정묘·기묘·신묘·계묘·□·정묘·□·신묘·□·갑진·무진·경진·임진·□·병진·□·경진·□·을사·정사·기사·신사·계사·□·정사·□·신사·□·갑오·병오·무오·경오·임오·□·병오·□·경오·□·을미·정미·기미·신미·계미·□·정미·□·신미·□·갑신·병신·무신·경신·임신·□·병신·□·경신·□·을유·정유·기유·신유·계유·□·정유·□·신유·□·갑술·병술·무술·경술·임술·□·병술·□·경술·□·을해·정해·기해·신해·계해·□·정해·□·신해·□로 돌아 다시 갑자로 일주한다.

14층 360도는 정침 24산 한칸에 15칸씩 분금하고 방위는 넣지 않는다. 관상감의 윤도 판본에는 360도 길흉표가 있다. 개살표(開殺標)는 <X>, 차착표(差錯標)는 </>, 소흉표(小凶標)는 <工>, 대흉표(大凶表)는 <○>, 흉살표(凶殺標)는 <●>로 360분금에 표시했지만, 김종대는 생략했다.

그리고 1층 8괘 역시 정침 계열이며, 정침 24산 세칸을 8괘의 1칸으로 잡는다. 방위는 임·자·계방에 감(坎)이 있고, 간·진·손·리·곤·태·건으로 돌아왔다.

2층 8요도 정침 24산과 분금이 같다. 그런데 글자는 한칸 새기고 두칸은 비우고, 한칸 새기고 두칸 비우기를 반복한다. 정침 24산의 자에 진·(□·□) 간방에 인·(□·□) 묘방에 신·(□·□) 손방에 유·(□·□) 오방에 해·(□·□) 곤방에 묘·(□·□) 유방에 사·(□·□) 건방에 오·(□·□)로 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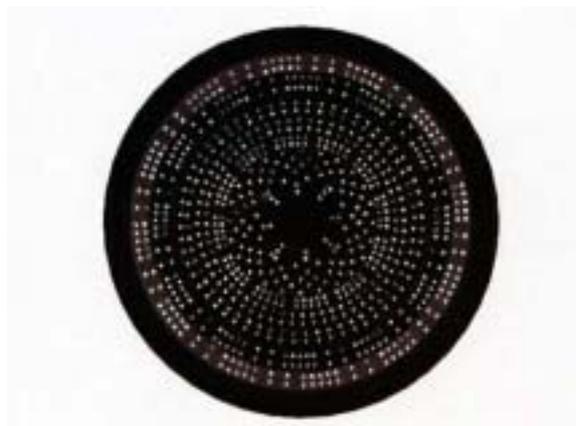


그림10. 정침 120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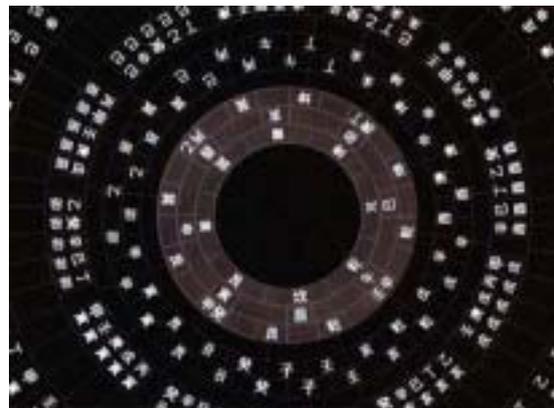


그림11. 8괘·8요·황천분금.

3층 황천도 정침 계열이다. 방위는 정침24산을 기준으로 할 때 자(子)방 위에는 빈 칸(□)이고, 그 다음부터 간(艮)·□· 계갑(癸甲)·□· 간(艮)· □· 손(巽)· □· 을병(乙丙)· □· 손(巽)· □· 곤(坤)· □· 정경(丁庚)· □· 곤(坤)· □· 건(乾)· □· 신임(辛任)· □· 건(乾)의 순서이다.



그림12. 240분금 및 360도 분금

②봉침 계열 분금

6층 정침 24산과 같이 분금이 가능한 층들을 정침 계열이라고 분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봉침 24산을 중심으로 분금이 이루어지는 층들은 ‘봉침 계열’이라고 할 수 있다. 봉침 계열은 4층 선천 12지 · 7층 중침 24산 · 9층 태골룡 · 12층 봉침 120분금이다.

봉침 계열의 분금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5층 봉침 24산의 자(子)이다. 봉침 24산의 방위명은 정침 24산과 동일하지만, 다만 그 시작이 정침 24산의 자(子) · 계(癸)방의 반에서 자(子)가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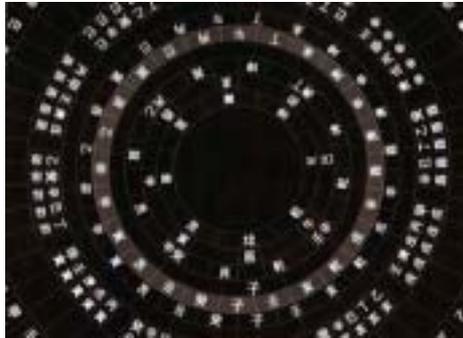


그림13. 봉침 24산 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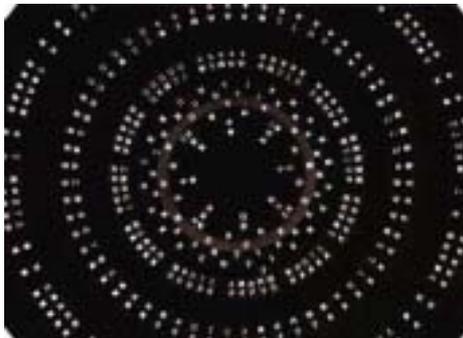


그림14. 선천 12지 분금

4층 선천 12지는 봉침 24산 두칸에 1칸씩 분금한다. 방위는 봉침 24산 임(壬)·자(子)방 두 칸에서 자(子)가 일어나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로 순행한다.

7층 중침은 24산은 봉침 24산과 동일하게 분금한다. 기준 방위인 자(子)는 정침 24산의 임(壬)·자(子)방 사이에서 일어나 계·축·간·인·갑·묘·을·진·손·사·병·오·정·미·곤·신·경·유·실·술·건·해·임으로 돈다.

9층 태골룡은 봉침 24산 두칸을 합쳐서 5칸으로 분금하여 60칸이 되도록 만든다. 기준 방위인 갑자는 봉침 24산 임(壬)방 초에서 일어나고 60투지와 같은 순으로 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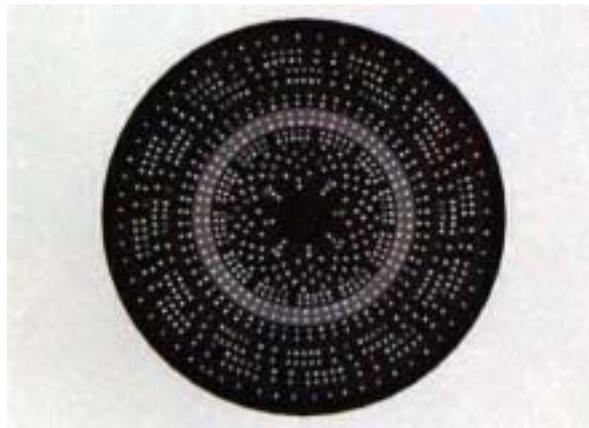


그림15. 태골룡 분금



사진114. 정침 계열 분금

12층 봉침 120분금은 봉침 24산 한칸을 5칸으로 나눈다. 기준 방위는 갑자(甲子)는 봉침 24산 자(子)방 초에서 시작된다. 방위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즉 갑자·병자·무자·경자·임자·□·병자·□·경자·□·을축·정축·기축·신축·계축·□·정축·□·신축·□·갑인·병인·무인·경인·임인·□·병인·□·경인·□·을묘·정묘·기묘·신묘·계묘·□·정묘·□·신묘·□·갑진·무진·경진·임진·□·병진·□·경진·□·을사·정사·기사·신사·계사·□·정사·□·신사·□·갑오·병오·무오·경오·임오·□·병오·□·경오·□·을

미· 정미· 기미· 신미 ·계미· □· 정미· □ 신미· □· 갑신· 병신· 무신· 경신· 임신· □· 병신· □· 경신· □· 을유· 정유· 기유· 시유· 계유· □· 정유· □· 신유· □·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 □· 병술· □· 경술· □· 을해· 정해· 기해· 신해· 계해· □· 정해· □· 신해· □로 돌아 다시 갑자로 일주한다.

그리고 마지막 15층 도숙오행은 분금 간격이 불규칙해서 어느 계열에도 속하지 않는다. 도숙오행을 분금하기 위해서는 관상감 윤도판본이나 한씨 윤도를 보고 계산을 해야 한다. 그 간격은 대략 정침 24산의 자(子)방을 기준으로 할 때 360°의 -1°에서 시작한다.

3)각자(刻字)하기

글자를 새기는 작업은 까다롭고 지루한 일이다. 김종대는 ‘글자 새기는 일은 눈이 빠지는 일’이라고까지 한다. 한 층을 각자하는데 보통 한나절이 걸리고, 글자 수가 많은 층은 꼬박 하루가 걸린다.

글자를 새길 때는 새겨야 하는 글자를 생각하면서 먼저 조각칼로 획수에 따라 점을 찍어 놓고 그것들을 연결해 각자한다. 분금해 놓은 각 칸들이 작기 때문에 판을 사방으로 돌려가면서 글자를 새긴다. 모든 글자가 각(刻)하기 힘들지만, 특히 획수가 많고 복잡한 글자들은 작은 칸에 넣기에 더욱 어렵다.

예를 들어 인(寅)· 처서(處暑)· 백로(白露)· 한로(寒露)· 상강(霜降)· 경칩(驚蟄) 등의 글자들은 많은 획수를 다 새기지 않고 대신 약자로 새기거나 음(音)이 같은 글자로 대치하기도 한다. 즉 인(寅)은 음이 같은 인(刃)으로, 처서(處暑)도 간단히 처서(□暑)로, 백로(白露)는 음이 같은 백로(白路)로, 한로(寒露)도 한로(寒路), 상강(霜降)은 상강(相降)으로, 경칩(驚蟄)은 경충(驚虫)으로 새긴다. 또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글자들은 생략하기도 한다.

각자는 음각(陰刻)으로 하며 각자에만 쓰이는 작고 정교한 칼을 이용해 분금이 끝난 윤도판에 직접 새겨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획수라도 잘못 그어 글자를 망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며칠이 걸려 완성된 분금된 윤도판을 전부 갈아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각자 작업은 급한 마음으로 서둘러서 하면 안된다. 작업에 몰입이 되었을 때는 계속할 수 있지만, 마음이 흐트러진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쉬어 가면서 느긋하게 해야 한다.



그림16. 자(子) 새기기



사진115. 각자하는 모습



사진116, 117. 각 층의 기준이 되는 글자부터 각을 한다.



사진118, 119. 각자 작업은 정신집중을 필요로 한다.



사진120, 각자 작업을 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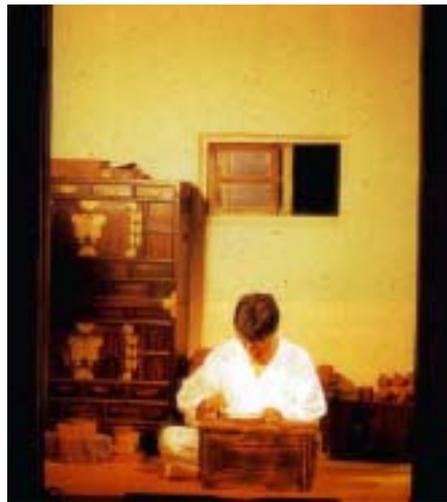


사진121 각자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122, 123. 각을 하다가 지치면 동네를 한바퀴 돌며 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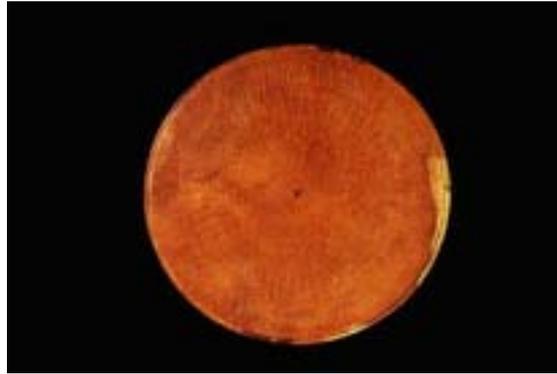


사진124. 각자를 끝낸 윤도

예전에 백부가 각자를 할 때는 온 집안 식구들이 긴장했었다고 한다. “정간, 각자 작업을 할 때는 온 집안 식구들이 조심 조심을 했다. 만약 글자를 새기다가 잘못되면 사소한 일에도 굉장히 화를 내셔서, 이 일을 할 때면 가족들이 신경을 많이 썼다. 아버지는 작업 중간 중간에 단소를 옆에 끼고 나가 동네 한바퀴를 돌아 오셨다.”는 백부 딸의 회상에서도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정신 집중을 요구하는 작업인가 짐작할 수 있다. 김종대도 이 작업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지만, 일이 잘 안되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들에 나가 농사일을 하거나 마을을 산책하면서 마음을 달랜다.

이 마을에서 대대로 만든 윤도는 그 관분이 같기 때문에 정간에서는 구분되지 않고, 각자한 형태를 보아 구별할 수 있다. 한씨 윤도 건(乾)의 각자(刻字)는 김씨 집안의 윤도에 비해 빠침이 작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그리고 백부의 작품은 작은 나무에 많은 층을 새겨 글씨가 뽁뽁하고 선명하며 정렬된 느낌으로 알 수 있다. 김종대와 백부의 작품은 축(丑)자에서 차이가 있어, 백부는 중(中)에 가깝게 새기고 김종대는 축(丑)자 그대로 각한다. 옛날 작품들이 수리가 들어올 때면 이렇게 글씨의 각을 보아 한씨·조부·백부가 만든 것을 판별한다.

4) 색 입히기

수일에 걸쳐 각자가 끝나면 먹·옥돌가루·주사 등으로 분금과 글자를 선명하게 색을 입힌다.

(1) 먹칠하기

각자를 다 하고 나면 먼저 먹으로 전체 색을 낸다. 먹칠을 할 때 쓰는 것은 보통 서예를 할 때 쓰는 일반 먹으로, 붓글씨 쓸 때보다 낮은 농도로 갈아야 한다. 먹물에 붓을 듬뿍 적혀 칠하는데, 뚜껑이 닿을 흠과 자침이 들어갈 중심원에는 먹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윤도판 전체에 골고루 먹물이 들도록 해야 나중에 옥돌 분칠을 했을 때 화사하고 윤기가 난다. 그러나 너무 진하게 칠하면 후에 옥돌 분칠을 해도 잘 먹히지 않으므로, 먹칠을 할 때는 덧칠하지 말고 한번에 칠하도록 한다.

먹물이 분금과 각자에 골고루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다 칠하고 나면 솔을 갖고 표면을 문지른다. 그리고 분칠이 잘 되도록 먹물은 충분히 말린다. 먹물이 충분히 마르면 굵개로 한번 더 표면을 문질러 준다. 이것은 먹칠할 때 먹물이 많이 든 부분과 덜 먹은 부분이 얼룩지지 않게 정리하는 작업이다.



사진125. 각자가 끝난 윤도 전체에 먹칠한다.



사진126, 127, 128. 먹칠하고 고무 먹도록 솔로 문지른다.

(2)중앙원 다듬기

먹칠이 끝나면 옥돌 가루를 갈아 분칠하기에 앞서 자침이 들어갈 중앙원을 다듬는다. 동심원이 모양이 제대로 되었나 살피고 자침을 넣기에 적당한 깊이인가를 살피 손질한다. 최대에 윤도를 고정시키고, 자침이 들어갈 중앙원을 끝과 망치로 손질한다.



사진129. 걸음쇠로 중앙원을 다시 표시한다.



사진130, 131. 끝과 망치로 중앙원을 손질한다.



사진132. 정리가 끝난 중앙원

먼저 걸음쇠로 원모양을 확실히 잡아주고, 유리를 덮고 테선을 두르고도 받침대에 얹힌 자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깊이를 조절한다. 또한 유리 덮개와 테선이 걸칠 수 있도록 홈을 만든다. 그런데 중앙원을 다듬을 때는 정간을 할 때 기준이 되었던 중심점을 없애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중심점이 움직이면 중심에 자침을 얹힐 수 없어 정확한 윤도를 만들 수가 없다.

(3) 옥돌 가루 칠하기

중앙원을 다듬고 나면 옥돌 가루를 칠한다. 옥돌 가루의 흰색은 각자와 분금 속에 들어가 먼저 칠한 먹칠 바탕에서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게 된다. 옥돌을 갈 때는 곱돌에 물을 뿌려 가며 진하지 않게 간다. 옥돌을 너무 되직하게 갈면 글자와 분금 속에 옥돌 가루가 들어가지 않거나, 혹 들어갔다고 해도 제대로 착색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들떠 떨어져 버린다. 이것을 ‘알갱이가 빠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농도를 얇게 하여 옥돌 간 물이 흐르듯이 각 홈 속에 들어가도록 칠한다.



사진133. 옥돌 가루 칠하기



사진134, 135. 마르기 전에는 희끗희끗하지만 완전히 마르면 흰색이 선명하다.



사진136, 137. 다 마르면 옥돌 가루를 긁어낸다.

글자와 분금을 다 칠하고 나면 이번에는 옥돌을 진하게 갈아서 자침이 들어갈 중앙원에 칠한다. 그러나 테선이 들어갈 부분은 칠하지 않는다. 중앙원까지 다 바르고 나면 햇볕에 충분히 말린다. 마르기 전에는 농도가 얇어 희끗희끗하게 보이지만 완전히 마르면 흰색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먹물을 바르지 않았던 중앙원은 마르면서 대추나무의 진이 묻어 나와 붉은 색을 띠게 된다.

완전히 옥돌 가루가 마르면 굵개로 분금과 각자에만 흰색이 남도록 하고, 표면에 칠해진 옥돌 가루를 긁어낸다. 그러면 바탕의 검은색에 흰색의 글자와 분금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4)주사(朱砂) 입히기

6층 정침 24산의 글자 중에서 동·서·남·북 정방향을 나타내는 글자(자(子)·오(午)·묘(卯)·유(酉))에만 주사를 입힌다. 주사는 붉은색을 내는 일종의 돌가루이다. 이것을 곱돌에 갈아 붉은색을 충분히 내서 다른 곳에는 묻지 않게 조심해서 칠한다. 그리고 말려서 네 글자에만 붉은색이 남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긁어낸다.

작업 순서상 주사 입히기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일이지만, 색을 입히는 작업이기 때문에 함께 다루었다. 먹물을 입힌 검은색 바탕에 옥돌 가루로 흰색을 칠한 글자와 분금, 그리고 주사로 붉은색으로 사방 정방위를 표시하면 윤도의 색 입히기가 끝난다.



사진138, 139. 정침 24산 중 자(子)·오(午)·묘(卯)·유(酉)에만 주사를 입힌다.

5)자침(磁針)만들기

(1)모양만들기

자침의 재료는 큰 쇠바늘이 주로 쓰이고, 최근에 와서는 쇠로 된 우산살을 이용하기도 한다. 먼저 준비된 쇠바늘을 화로(火爐)속 숯불 위에서 달군다. 쇠바늘이 붉은색으로 충분히 뜨겁게 달구어졌을 때 집게로 꺼내 망치로 쳐서 편다. 바늘이 충분히 달궈진 상태를 ‘익었다’고 하는데, 바늘이 충분히 달구어지지 않으면 두들길 때 쇠바늘이 튈다.



그림17. 자침모양 만들기

망치로 두들겨 쇠바늘을 넓게 편다. 그리고 중앙원의 크기에 맞추어 양쪽 끝을 정으로 잘라 침(針)의 길이를 맞춘다. 양쪽 옆면을 줄로 다듬어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든 다음, 작은 정(釘)을 이용해 침의 중심을 잡는다. 침의 중심을 잡아 구멍을 내고 줄로 고르게 다듬고, 정으로 표시한 부분에 활비비를 이용해 구멍을 넓힌다. 그리고 나서 직사각형인 침을 정과 망치로 좌우 끝을 뾰족하게 자르고, 날개 부분은 줄로 갈아서 모양을 낸다.



사진140. 쇠바늘을 충분히 달군다.



사진141, 142. 쇠바늘을 화롯불에 달구어 납작하게 편다.



사진143. 납작해진 바늘에 줄질하여 직사각형으로 만든다.



사진144, 145. 작은 정으로 바늘의 중앙을 표시하고 활비비로 구멍을 뚫는다.

침의 모양이 완성되면 중앙에 활비비로 뚫어놓은 구멍에 유기조각을 끼우고 줄로 표면을 다듬는다. 침의 중앙 부분은 나중에 받침대에 얹어 놓아야 하므로, 받침대와 마찬가지로 자력을 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유기를 재료로 사용한다.

침을 받침대 위에 균형 있게 얹기 위해서는 침의 중앙에 박아놓은 유기에 홈을 파야 한다. 이때 활비비로 홈을 파게 되는데 여기서도 제작자의 솜씨가 발휘된다. 즉 침의 홈이 전후좌우로 잘 맞아야 바늘이 받침대에 얹혔을 때 수평과 중심이 맞아 자유롭게 회전을 할 수 있다. 만약 홈이 한쪽으로 기울었거나 원추형으로 파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침이 좌우로 기울거나 회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날개 모양을 만들고 불필요한 부분을 정과 망치로 자르고 줄로 갈면 침의 외형은 완성된다.



사진146, 147. 줄과 정으로 날개 부분을 만든다.



사진148, 149, 150. 침의 중앙에 자력이 타지 않는 주석을 박는다.



사진151. 자침 모양 완성

(2) 색과 자력 입히기

침의 균형이 잘 맞으면 다음에는 색을 내야 한다. 색을 내기 전에 침은 철 특유의 회백색을 띠고 있는데, 이대로 사용할 경우 침이 눈에 잘 띠지 않거나 혹은 녹이 슬 염려가 있다. 그래서 침을 검은색으로 변색시키는데, 검은색으로 변한 침은 녹도 슬지 않고 중앙원에서 선명하게 빛난다.

침에 검은색을 내기 위해서는 잘 달구어진 숯불 위에 놓아둔다. 그러나 숯불 위에 너무 오래 두면 흰색으로 변하고, 너무 일찍 꺼내면 붉은색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과 온도를 맞춰 파란색이 될 때 빨리 꺼내야 한다. 파란색이 난 침을 식히면 검은색으로 변한다.



사진152. 달구어진 숯에 놓아 파란색이 나면 꺼낸다.

색내기가 끝나면 여기에 자력을 입혀야 한다. 침을 자연 자석에 15분-30분 붙여 놓으면 자성(磁性)이 생겨 지오(指午)를 하게 된다. 이렇게 침이 자석에서 자력을 얻어 남북을 가리키게 되면 비로소 자침(磁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 자석에도 남북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침을 자석에 붙일 때 잘 맞추어야 한다.

침에 자력을 입힐 때 다른 자석도 써 보았지만, 자력은 강하지만 남북이 제대로 맞지가 않아 지침을 만들 때는 꼭 이 자석을 쓴다.



사진153. 자연 자석에 붙여서 자력을 입힌다.

(3)자침 받침대 박기와 자침엮기

윤도의 중앙원에 자침을 얹히기 위해서는 자침을 받쳐줄 자침 받침대가 필요하다. 받침대는 자력(磁力)을 타지 않는 유기나 주석이 재료로 적당하다. 둥근 봉 모양의 주석 한쪽 끝을 뾰족하게 갈아서 바늘모양으로 만들어, 자침을 엮어서 균형이 맞는가를 실험한다.



사진154, 155. 주석으로 받침대를 만들어 자침을 올려놓고 균형을 맞춘다.



사진156, 157. 받침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윤도의 뒷판에서 박는다.

받침대는 최초에 잡아 두었던 중앙원의 기준점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윤도판의 뒷면에서 빠들어지지 않게 수직으로 박는다. 앞쪽으로 나온 받침대 위에 자침을 올려놓고 유리를 덮어 보면서 높이를 조절한다. 유리를 덮고 뒤집어 흔들었을 때 자침이 떨어지면, 덮개유리와 받침대 사이의 간격이 많고 받침대의 높이가 낮다는 것이므로 다시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그렇다고 받침대의 높이가 너무 높아 유리와 꼭 맞아도 자침이 움직이지 않아 안된다.



사진158. 흰 종이에 직선을 그어 중앙원에 넣는다.



사진159. 유리 덮개를 씌운다.



사진160. 테선을 두른다.

그러므로 유리와 어느 정도 간격이 있어 자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자침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높이를 맞추어서 받침대의 길이를 자른다.

그리고 흰 종이를 중앙원의 크기에 맞추어 잘라 가운데 검정색으로 직선을 긋는다. 직선이 윤도의 자오(子午)와 일직선이 되도록 맞추어 집어넣고 받침대에 자침을 얹힌다. 실을 갖고 자오가 잘 맞는가 확인해 본다.

유리를 가위로 자르고 사포로 갈아서 중심원의 크기에 만들어 덮는다. 그리고 테선의 재료로 준비한 대나무를 망치로 손잡이 부분으로 눌러 둥글게 휘여, 중심원에 맞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 테선 [테생이] 을 만들어 유리 덮개를 고정시킨다.

7) 마무리

윤도의 뚜껑과 몸체의 나무 결은 잘 맞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의 나무 양면을 나누어 몸체와 뚜껑으로 쓰기 때문이다.

뚜껑 표면에는 별다른 장식이 없고 결음쇠로 2개의 원을 그리는 것이 고작이다. 또한 뚜껑과 몸체를 꼭 맞추어 닫은 후 옆면에 두 부분에 걸쳐 작은 원을 그려 놓아, 원을 보고 뚜

경이 제대로 맞았나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 표시에 맞게 뚜껑을 여닫으면 뚜껑이 헐거워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다.

이렇게 완성된 평철의 표면에 들기름을 발라 마무리한다. 들기름은 광목으로 바르는데, 한번에 너무 많이 바르면 좋지 않으므로 여러 번 고루 바른다. 대추나무에 들기름을 바르면 윤기가 나고 색깔도 약간 검은 색을 띤다.



사진161. 뚜껑에 원을 그려 장식한다.



사진162. 옆면에 원을 그린다.



사진163. 옆면의 원을 맞춰 뚜껑을 닫는다.



사진164. 들기름을 칠한다.



사진165. 평철 완성



사진166. 완성된 윤도를 뒷산 거북바위에 놓고 자오가 맞나 확인해 본다.

8)자오 맞추기

낙산마을 뒷산에는 거북바위가 동서 방향으로 누워 있다. 이 거북바위 등에는 몇 개의 작은 구멍이 등을 따라 일직선으로 파져 있다. 완성된 윤도의 자침을 자오(子午:남북)에 맞추

어 놓고, 실을 거북바위 등의 동서 방향으로 맞추면 자침과 실이 직각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 윤도의 정확성이 확인되는 것이다.

백부 김정희에 대한 문화재 위원 예용해의 조사 보고서를 보면 거북바위에 대한 언급이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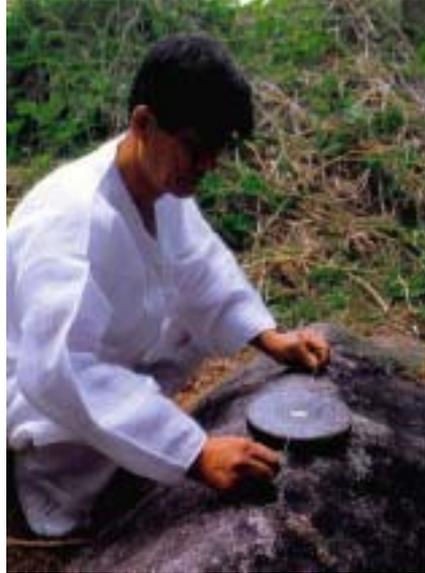


사진167. 자침과 실이 직각을 이루면 윤도는 정확하다.

“마을 뒷산을 낙산(洛山)이라 한다. 그 산에 거북 모양의 바위가 있어 머리가 정북(正北)을 향했다. 이는 하도낙서(河圖洛書)라 일러 오는 낙구(洛龜)와 같이 선천십이지(先天十二支)를 상징하는 것으로 거북바위라 일러 온다. 무슨 천리(天理)인지는 모르나指南鐵(指南鐵)은 거북바위 아랫마을인 낙산리에서 만들어야만 지오(指午)를 하지, 딴 인근 마을에선 만들래야 만들 수도 없을뿐더러 지오(指午)도 하지 않는다”

2. 선추

선추(扇錘, 扇墜)· 선초(扇貂)는 부채의 고리에 매달아 쓰는 장식품이다. 옛날에는 선추를 비취옥· 호박· 뿔· 금속 등으로 만들어 함축선에 달고 다니기도 했다. 김종대가 만드는 선추는 속을 파고, 서랍처럼 만든 알맹이에 기본 24방위만 새겨 넣고 뿔 수 있도록 만들었다.

1) 예용해, 「선초匠」 『인간文化財』, 語文閣, 1969



사진168. 직사각형의 몸체와 윤도를 새길 서랍식 알맹이는 별도로 만든다.



사진169, 170. 몸체 알맹이를 넣을 구멍을 판다.



사진171. 몸체의 구멍에 알맹이를 끼워 본다.



사진172. 몸체에 원을 그려 모양을 다듬는다.

이 선추는 방위를 보는 것이 주가 되지만, 해시계로 쓸 수 있도록 바늘을 하나 더 달아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몸체 외부에 뛰어난 조각 솜씨로 멋을 부려 공예적인 가치도 높다. 백부가 만든 선추를 본 문화재위원 예용해의 설명을 보자.

“선초의 양면에는 주로 소나무와 학·해와 달·산천경치(산수(山水), 누각(樓閣)·불로초와 같은 십장생 등을 조각한다. 용과 같은 것은 조잡스러워서 못쓰고, 십장생 문양 가운데서도 소나무와 학이 가장 힘들다. 각 할 때는 밑그림을 연필이나 붓으로 그리면 문양이 죽어서 못쓴다. 처음부터 각도로만 조각을 해야 한다. 조각에는 ‘민각’과 ‘통각’이 있다. 민각은 구멍을 내지 않은 것이고, 통각은 구멍을 낸다. 문양을 적당히 안배하여 입체감을 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마음을 가다듬고 손끝으로만 다듬어야지, 기계의 힘을 이용하면 ‘미덥지 않아서 못쓴다. 이 선초 속에 윤도를 각하여 몸에 꽃아 끈으로 꿰면 선초가 완성된다.”



사진173. 작두로 원형으로 모양을 만든다.



사진174. 사포를 이용하여 매끈하게 다듬는다.

김중대는 백부에 비해 외부 문양 조각 기술이 모자라지만, 여전히 그 기술을 이어 받아 선추를 만들고 있다. 다음은 김중대가 선추를 만드는 과정이다.

금곳기와 자를 이용해 대추나무로 직사각형의 몸체를 만든다. 선추속에 넣은 서랍식 알맹이는 별도로 톱과 작두 등으로 다듬는다. 그리고 몸체에 윤도를 새긴 알맹이를 넣을 수 있도록 도래 송곳과 평칼 등으로 속을 판다. 속을 파서 구멍이 만들어지면 네모난 몸체 위에 원형을 그리고 작두로 원형으로 다듬는다. 그리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작두로 모서리를 볼록하게 다듬고 사포질을 한다. 분도기로 원을 그리고 원 안에 문양을 도안하여 조각한다.

서랍식으로 들어갈 알맹이에는 자침을 넣을 중심원과 24방위를 새길 원을 그려서 분금하고 각자한다. 이 과정은 앞에서 살펴 본 평철과 같다.



사진175. 문양 넣을 원을 그린다.



사진176. 몸체에 문양을 도안하여 조각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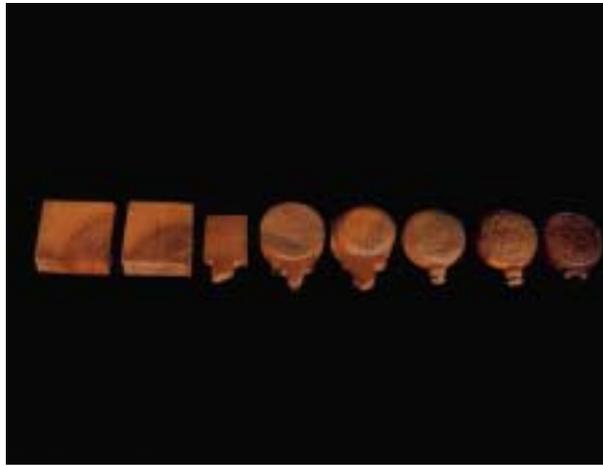


사진177. 선추 제작 공정



사진178. 완성된 선추

3. 면경철

면경철은 선비들의 소지품으로 뚜껑에 거울을 넣어 볼 수 있게 하고, 몸체에는 윤도를 새겨 방위를 알게 했다. 또한 그 표면에 다양한 문양을 조각하여 선추처럼 멋을 부렸다.



사진179, 180. 직사각형으로 자른 나무를 몸체와 뚜껑으로 나눈다.



사진181. 거울 넣을 부분을 표시한다.



사진182. 끌을 이용해 판다.



사진183, 184. 뚜껑에 거울 넣을 부분을 파낸다.



사진185, 186. 거울을 넣고 대나무 테선으로 고정한다.

면경철을 만들 때는 우선 원통형의 대추나무를 사각형으로 만들고, 몸체와 뚜껑으로 이등분한다. 이때 뚜껑은 두께를 약간 얇게 하고, 몸체는 자침과 유리 덮개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껍게 자른다. 뚜껑에 거울과 테선을 넣을 부분을 끌을 이용해 파낸다. 몸체는 윤도를 새길 수 있게 평면으로 만들고 평철의 제작 방법과 같은 순서로 윤도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뚜껑과 몸체를 붙이면 된다. 백부는 면경철의 옆면까지 표면 전체에 조각을 하였으나, 김종대는 뚜껑 표면에만 조각을 하고 있다.



사진187, 188. 뚜껑의 표면에 무늬를 조각한다.



사진189, 190. 백부(오른쪽)와 김종대 작품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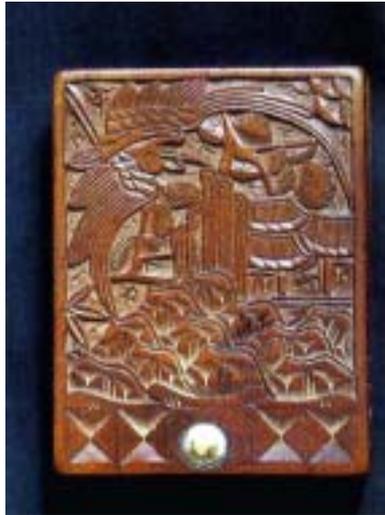


사진191. 면경철 제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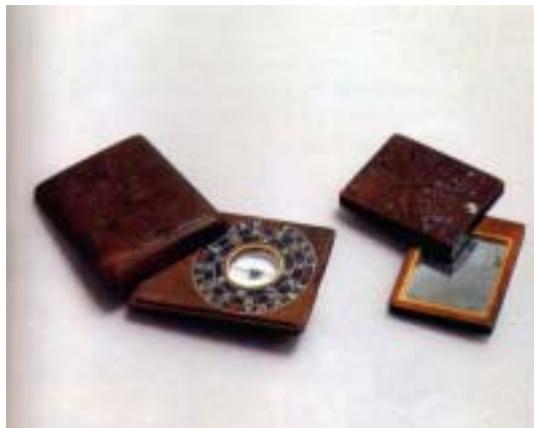


사진192. 완성된 면경철

4. 거북 패철

거북 패철은 선대(先代)에는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김종대가 다양한 모양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생각해 낸 것이다. 이 마을의 지형과 뒷산의 거북바위, 백부의 호 [구남(龜南)] 등이 거북이와 관련이 있어 거북이 형상으로 윤도를 가끔씩 만들어 보고 있다.



사진193. 나무에 거북 모양을 그린다.



사진194. 자귀로 다듬는다.



사진195. 거북 모양이 대략 되었다.

우선 외형에 완전히 거북이 모양으로 다듬고 거북 등으로 뚜껑을 만들고 몸체에 윤도를 새겨 완성한다. 제작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만들고자 하는 거북 패철의 크기에 맞게 나무를 잘라 외형을 잡아 나간다. 톱과 자귀 등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면서 거북이 모양을 잡는데, 대추나무는 단단하고 강하기 때문에 부분 부분으로 잘게 잘라 다듬어야 한다. 모양이 어느 정도 잡혀지면 몸체 부분과 뚜껑을 분리하기 위해 금긋기로 표시한다. 거북 머리 부분을 남겨 두고 뚜껑을 몸체보다 더 두껍게 잡아 톱으로 자른다.

몸체와 뚜껑을 분리한 후, 몸통의 정간과 각자할 부분에 작은 걸음쇠로 원을 그린다. 몸체에 그린 원과 크기가 같은 원을 뚜껑에 그려 나중에 몸체와 뚜껑이 잘 맞도록 한다.



사진196. 뚜껑의 두께를 표시한다.



사진197. 뚜껑과 몸체를 나눈다.



사진198. 몸체와 뚜껑 분리한다.

뚜껑은 거북이 등처럼 다듬는데, 조각칼로 깎고 사포로 문질러서 둥글게 거북이 등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원형 칼로 거북이 등에 두 줄로 등줄기를 만들고, 뚜껑 안쪽 부분을 끌로 파내어 달을 때 몸체에 꼭 맞게 한다. 몸통은 먼저 머리 부분을 둥글게 만들고, 다리 부분을 조각한다. 윤도를 새길 부분은 걸음쇠로 그린 원을 남기고 주위를 파낸다. 외형 만들기가 완성되면 평철 만드는 순서와 같은 순서로 윤도를 그려 완성한다.



사진199, 200, 201. 거북 패철 뚜껑 만들기



사진202, 203. 뚜껑 만들기



사진204. 윤도 새길 원을 그린다.



사진205. 윤도 새길 원만 남기고 깎아낸다.



사진206. 거북 머리 모양을 다듬는다.



사진207. 다리를 만든다.



사진208. 등줄기를 만든다.



사진209. 거북 패철 제작 과정



사진210. 완성된 거북 패철

V. 윤도장 전수현황

전북 고창군 성내면 산림리 낙산(洛山)마을에서 윤도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흥덕현(興德縣)에 속해 이곳에서 만든 윤도는 ‘흥덕 패철’이라고 불렸으며, 방향이 정확하고 견고해 전통 나침반으로는 유일하게 지금까지 그 맥이 이어오고 있다.



사진211. 300여 년째 윤도장이 살고 있는 낙산마을



사진212. 흥덕 패철로 유명했던 낙산마을

김중대의 집안이 윤도장일을 하게 된 것은, 그의 조부(祖父) 김권삼(金權三) 때 마을에서 윤도일을 하고 있던 한씨가 조부에게 이 일을 물려주면서부터이다.

‘한운장’이라고 알려진 한씨는 재주있는 자식이 없자, 윤도 일을 같은 마을의 김권삼에게 물려주었다. 중년이 되어서 한씨로부터 기술을 배운 김권삼은 네아들 중에 손재주가 있던

둘째 아들 김정익(金正義)에게 윤도장일을 물려 주었다. 손재주가 좋고 한학(漢學)에 밝았던 김정익은 20세가 넘어 일을 시작해 65세로 작고할 때까지 많은 양을 제작하였는데, 일반 평철 이외에도 정교하고 사실적인 조각 기법이 필요한 선추·면경철 등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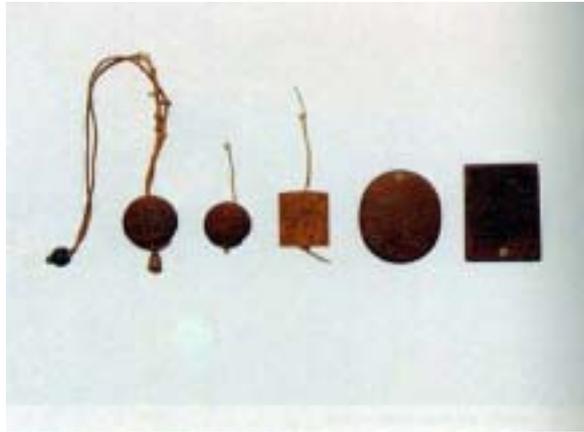


사진213. 선추와 면경철(김정익 작,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김정익은 딸 넷에 아들 하나 있었는데, 딸들은 절대로 일하는 사랑방에 드나들지 못하게 했다. 사랑방에서 작업을 하다가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신경질을 내고 괜히 반찬 투정을 하는 등 식구들을 붙잡고 야단을 해서 집안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한다. 때문에 작업을 하는 동안에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생활해야 했다.

마을 뒷산 거북바위로 인하여 구남(龜南)이라고 호를 지은 김정익은 15년 간 단소를 즐겨 온 낙인(樂人)이기도 했다. 그래서 글자가 혹 틀리거나 작업이 잘 안되면 일을 멈추고 단소를 불거나 마을을 산책하며 쉬었다. 그는 오랜 시간 앉아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방석을 높이 깔아도 엉덩이에 굳은살이 두껍게 배겨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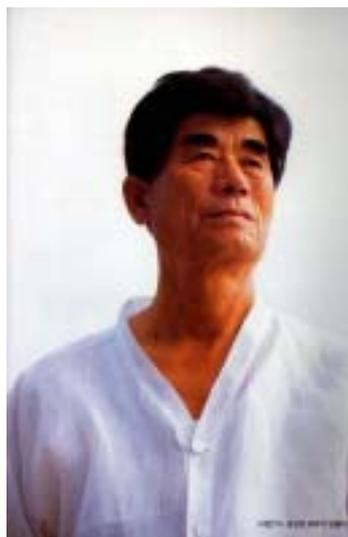


사진214. 윤도장 보유자 김종대

김정희가 만든 윤도를 구입하기 위해 가까이는 나주·광주·여수 등지에서 사람들이 왔고, 멀리는 평안도·함경도에서까지 왔다. 사랑방에는 윤도를 사러 온 손님이 항상 떨어지지 않아, 한끼에 밥을 6번이나 해 내가기도 했다. 김정희의 작업장은 두칸짜리 사랑방이었다. 윗칸은 윤도를 만드는 작업장이었고, 아랫칸은 윤도를 구하러 온 사람들이 묵어 가던 곳으로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김정희의 딸은 회상한다.

수요가 한창일 때는 윤도를 미리 제작해 놓고 판매하였으며 윤도1개의 값이 쌀 10섬 가격을 받을 만큼 성황이었다. 뱃사람들은 한꺼번에 50개를 만들어 가기도 했다. 덕분에 김정희의 집은 부유해서 어렵던 일제시대에도 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다고 그의 딸은 말한다.

김정희의 작업을 계승한 사람은 막내동생의 아들인 김종대였다. 김정희에게도 아들이 있었으나, 아들에게는 소질이 없다고 판단한 그가 손재주 좋은 조카에게 일을 맡겼던 것이다.



사진215. 평상시 작업을 할 때는 부인이 옆에서 돕고 있다.



사진216. 윤도 일을 물려준 백부 김정희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110호 윤도장 보유자로 지정된 김종대는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산림리 낙산마을에서 김영근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형이 일찍 죽어 외아들로 자랐다. 아버지 김영근은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이 없어 한글도 잘 몰랐으며, 손재주가 없어 툇질하나 제대로 못했다. 대신 예능에는 능해서 시조와 양금을 잘해 대회에 나가 상을 많이 탔다.

백부의 윤도를 만드는 일을 골목을 사이에 두고 보면서 자란 김종대는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았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지을 때도 그의 외할아버지는 아버지 대신 어린 김종대를 불러 일을 돕도록 했다. 그리고는 김종대의 운으로 집을 지었다며 당시 국민학교 다니던 그에게 집을 등기해 주었다고 한다.

김종대는 정읍에 있는 호남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당시 마을 전체 105호(戶)가구 중에서 고등학생은 3, 4명밖에 없었다. 학교 다니는 틈틈이 작업을 지켜보았던 김종대에게 백부는 “너는 소질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후계를 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때는 어깨 너머로 배웠고 실제로 작업을 하지는 않았고, 군대에 갔다와서 백부로부터 윤도일을 물려받았다. 백부는 이익(利益)이 없어라도 가업(家業)으로 계승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때는 1963년으로 서른 하나 되던 해로, 윤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작업 도구를 물려받았다.

‘백부는 손재주가 좋아 물건이 힘이 있고 수준급이었어. 종류도 많이 만드셨어. 지금도 수리를 부탁해 오는 패철을 보면 한눈에 그게 할아버지 것인지, 큰아버지 것인지 알 수 있지.’



사진217. 나무 고르는 법을 설명하는 보유자 김종대

대대로 전해오는 연장은 가져왔으나, 윤도 제작에 관한 자세한 훈련을 백부에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일을 시작할 수가 없었다. 백부는 그를 도제로 삼아 정식으로 기술을 전수한 적이 없어, 어려서부터 보고들은 것과 말씀으로만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백부의 일을 돕던 종형이 계속 윤도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형이 연장을 가져다가 윤도를 만들었다. 대신 김종대는 12년 간 농협에 다니면서 틈틈이 종형에게 일을 배웠다. 그후 농협을 그만두고 2년쯤 종형과 일을 같이하면서 윤도 만드는 세세한 과정까지 익혔다.

종형은 큰 백부의 아들로 둘째 백부가 윤도일을 할 때부터 일을 익혀 백부를 도왔으나, 나이가 많아 일을 물려받지는 못했다. 그는 구학(한학(漢學))을 잘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모르는 것이 있어 물어 보면 사전을 찾지 않고도 무엇이든 다 가르쳐 주었다. 또한 한학에 밝다 보니 윤도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아는 것이 많은 분이었는데, 도시로 나가지 못하고 아깝게 고향에서 썩었다고 김종대는 회상했다. 종형은 1996년에 84세

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김중대는 윤도일을 시작하면서 윤도에 필요하다고 하여 서당에 다니면서 한자를 익히고 모르는 것은 종형에게 물어 배웠다. 그리하여 마흔이 넘어서야 혼자 재료 준비에서 완성까지를 자신 있게 해 낼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처음 혼자 힘으로 완성한 것은 5층짜리 윤도였다고 한다.

조부나 백부가 일을 할 때는 찾는 사람이 많아서 꽤 돈벌이가 되었다. 해방 전만 해도 북쪽 지방에서도 윤도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직접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주문한 것을 우편으로 보내 주기도 했다. 당시를 기억하는 마을 사람들은 윤도 때문에 외지인(外地人)들이 많이 왔고, 가끔씩 우편으로 부치는 심부름을 해주었던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남북이 막히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었으며, 또 서양 문물의 영향으로 풍수사상이 미신으로 여겨지면서 윤도도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다.



사진218. 윤도 전수에 여념이 없는 보유자 김중대

요즘도 윤도를 알고 찾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TV방송을 통해 윤도장이 소개되면서 방송을 본 사람이 주문을 하거나, 예전부터 알고 있던 지관(地官)들이나, 아는 지관들에게 선물한다고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러다 보니 1년에 20개정도 만드는 것이 고작이라서 윤도 만드는 일만 해서는 생업(生業)이 될 수 없다. 다행히 김중대는 만평이 넘는 땅을 갖고 있어 농사를 지어 생계를 해결하고, 백부의 유언대로 윤도장 일은 가업으로 맥을 잇고 있다.

김중대는 평생 낙산마을을 떠난 적이 없다. 외아들이라 부모님을 모셔야 했고, 윤도는 낙산마을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묵시적인 약속 때문에 12년 간 다니던 농협도 그만 두면서 윤도 일을 지키고 있다. 마을 사람들도 윤도장이 자기 마을에 있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낙산마을에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외지(外地)에서 윤도일을 배우러 오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배우겠다고 김중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윤도장 전수자는 낙산마을에서 나와야 하므로, 다른 지역 사람이라도 여기에 들어와서 해야지 다른 곳으로 넘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선뜻 제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성내면에서도 작법(作法)을 잘하는 사람이 배우겠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낙산마을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싫다고 해서 김종대가 마다했다. 또 마을 사람 중에서 배우겠다는 사람이 있었으나 소질이 없어 가르치지 않았다. 그 사람은 현재 전주에서 살고 있는데 생활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불러 들일 수가 없다고 한다.



사진219. 1996년 윤도장 인정을 축하해 마을에서 잔치를 열어 주었다.



사진220. 윤도장을 이어가는 보유자 김종대 가족

현재 윤도 일은 큰아들 김희수와 아들의 친구 김재환이 배우고 있다. 김희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아버지를 도우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배웠으며, 지금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틈틈이 공예 기술을 배우러 학원에 다니고 있다. 머지 않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낙산마을에 내려와 가업을 계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재환은 대학을 다닐 때부터 목공예에 취미가 있었는데, 김종대가 윤도장으로 지정된 1996년부터 김희수의 소개로 일을 배우고 있다. 현재 김재환은 광주에서 목공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찰 건축 현장에도 목공예 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다.

정교한 손끝을 가진 '전통 나침반'의 명인(名人) 김종대는 윤도를 만들어 큰돈을 벌어야겠

다든가, 대회에 출품해서 상을 타 보겠다는 욕심이 없다. 그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家業)이기에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조부·백부의 뒤를 이어 3대째 윤도 제작의 기법을 이어 그 명맥을 유지하는데 노력할 뿐이다.

Yundo Jang (Magnetic Compass)

The magnetic compass is a compass which was often used by geomancers to choose auspicious sites for graves and houses by utilizing its ability to indicate North and South and for travellers to ascertain the direction of their route.

The function of indicating North and South on the magnetic compass was used by fortune-tellers in daily life in the age of the Han Empire in China, after which it was often utilized by geomancers in the field to choose and locate the position and direction of a site, together with their knowledge of the theory of geomancy.

The device to connect “divinational changes” and directions was called “Indication Pointer”, “magnetic compass”, “South-indicating plate”, “South-indicating iron”, “person ornament iron”, or “iron”.

Although we cannot know exactly when the magnetic compass began to be used in Korea, we may assume that it was used from the age of the Three Kingdoms. When Touŏn, a famous Buddhist monk, popularized his ideas on geomancy and prophecy in the late age of the Shilla kingdom, the magnetic compass was used to precisely locate the geographical position and direction of a site. From the Chosŏn period, however, it was used not only by sailors and travellers to indicate the direction of their route, but also by astronomers and others to precisely determine the direction of North and South for their portable sundials. Thus, the magnetic compass was a useful instrument for both daily life and science not only for geomancers to choose auspicious sites for graves

but also for the general public.

The magnetic compass was made by cutting jujube wood into a round shape, then carving the directions in all the 360 degrees, on it along with characters, and putting a steel pointer inside. As jujube has a fine grain and is hard enough for elaborate carving, it was the main material used to make the magnetic compass. After drawing concentric circles, separating the different compartments, and carving characters on the wood, the makers of the magnetic compass made the characters and divided lines clearer by adding colours to the magnetic compass with a mixture of Chinese ink, gem stone powder and red ink.

Then, a groove for the pointer that was to be inserted was cut in the center of the magnetic compass. After the pointer was added to the compass, a magnetic force was inserted. The magnetic pointer was put in the center of a tin plate after balancing it in every direction. When the magnetic pointer was put in perfectly, a glass cover was fixed with bamboo tape, and the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compass was finished by painting perilla oil over it.

Kim Chong-tae, the holder of the manufacturing skill of the compass, is the third generation to manufacture the compass after his grandfather, Kim Kwŏn-sam, and his uncle, Kim Chŏng-ũi. The manufacturing skill of the compass was handed over to him according to the will of his uncle, and he began to make the compass after the age of forty. However, he had no desire to make much money through manufacturing the compass or to obtain a prize after showing it at a contest. His only desire is to continue manufacturing the compass as a family heritage handed down from his ancestors, and he merely does his best to retain the creative skill of the compass.

In addition, at Naksan village in Sanrim-ri, Sŏngnae myŏn township, Koch'ang-kun county, Chŏnbuk province where the retainer lives, the manufacturing skill of this traditional compass has been handed down for more than 300 years, dating from before the predecessors of Kim Chong-tae. Because the village was under the jurisdiction of Hŏngdŏk County during the age of the Chosŏn Kingdom, the compass made here was called "Hŏngdŏk compass". The Hŏngdŏk compass is exact in pointing directions and is very durable, and the manufacturing skill of this traditional compass is being handed down only at this village.